서울大學校 同窓會報

동창회 지표 • 참 여 • 협 력 • 영 광

발 행 인 金 在 淳
편 집 인 鄭 宗 澤

발 행 처
서울대학교총동창회
121-040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화동 18-2
☎ 702-2233~5 • FAX:703-0755
인 쇄 처 한길기획

은행지로번호 7500875
대체구좌 010017-31-0621565

제230호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News 1997년 5월 15일

대학원동창회 정기총회(左上), 경대원동창회 창립30주년 기념 유공동문 표창(右上), 마산지부 간담회에서 金在淳회장이 인사말을 했다.(左下), 진주지부 간담회(右下).

각 대학원 및 지방지부 모임 성황

참여도 높아 동창회 활동에 활기

관악춘추

"책임감을 심어주자"

5월은 우리들 모두의 꿈나무인 어린이의 달이다. 과거 서울대 출신 동문들이 어렸을 때는 『잘 먹고 잘 입고 마음대로 뛰어놀 수 있다면!』이 소박한 바람이었다.

그만큼 먹고 살기가 쉽지 않은 것이 당시의 형편이었다. 다행스럽게도 경제사정은 눈부시게 나아졌다. 그러다보니 요즈음 어린이나 청소년들의 행태는 분명히 과거와는 사뭇 달라졌다. 우선 신체적으로 키도 커지고 피부색깔도 훤해졌다. 자기 주장을 거침없이 표현하는 개성도 뚜렷해졌다. 바람직한 변화라고 본다.

그러나 아쉽게 느껴지는 점도 적지 않다. 그 가운데에서도 절약정신의 실종이 가장 아쉽다. 몽당연필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쓰다버린 연필을 보기 힘들고, 깨끗한 종이들이 교실 쓰레기통에 가득하다고 한다. 신발주머니 정도가 아니라 라디오, 녹음기, 옷가지 등을 잃어버리고도 전혀 걱정하지 않는 어린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얼마전 오랫만에 북한산에 가보니 등산객 인파 가운데 10대 청소년의 얼굴을 찾아보기 힘들었다. 물론 불합리한 입시제도 때문에 「공부지옥」에 묶인 탓도 있겠지만 가파른 정상을 향해 힘들게 걸어야 하는 인내심의 부족 탓이 아닌가 걱정된다. 「浩然之氣」를 느껴보기도 전에 너무 쉽게 랩송이나 댄스뮤직에 빠져드는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

중·고등학생 가운데는 부모들의 결사반대에도 불구하고 배꼽티에다 길바닥을 청소하듯이 통바지를 끌고 활보하는 이른바 X세대가 늘고 있다. 이러다보니 지하철 경로석에 앉았다가 노인에게 좌석을 양보하는 청소년, 자기가 자고난 침구를 정리하거나 방청소를 도와주는 어린이들이 마냥 기특하게 여겨지는 세태가 됐다.

어린이의 달을 맞아 희망의 꿈나무가 무럭무럭 자라게 보살펴줄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 하지만 제멋대로 뻗어나 오히려 숲을 망치는 나무가 되지 않도록 造林보다 育林에 더욱 힘써야 될 때가 된 듯 싶다. 겨레의 길잡이를 자부하는 서울대 동문들부터 앞장서자.

지식에 앞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의식을 2세들에게 심어주자. 아무리 힘들더라도 일단 맡은 일은 끝까지 마무리한다는 책임감을 뿌리깊게 심어주자. 그래야만 성수대교 붕괴사고보다 더 충격적인 경부고속철도의 총체적 부실공사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圭)

만든사람 • 논설위원:金榮國, 孫一根, 金哲洙, 金昌悅, 朴世熙, 林炯斗, 崔靑林, 李東和, 李炯均, 南仲九, 宋鎭赫, 李年憲, 洪性萬, 丘月煥, 李成俊, 安炳璨, 李元馥, 金仁圭 편집주간:李世震 기자:安輿燮, 金志妍, 盧志元

마산 지부

단과대별 동창회 결성키로

마산지부 宋회장(사진 右)이 金회장에게 기념품을 증정했다.

마산支部同窓會(회장 宋國憲)는 지난 22일 마산 롯데 크리스탈호텔에서 30여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했다.

본회 金在淳회장, 鄭宗澤상임부회장, 宋斗灝부회장, 李世震사무총장을 비롯해 마산지부 安在鏞(순안병원장), 權永煥(재건약국장), 申尙澈(경남대교수), 金炯英(경남경제[illegible] 姜來烈(안과의원장), [illegible]진산업사장)동문 등이 참석한 이날 모임에서 宋회장은 『먼길을 마다않고 방문해주신 회장단에 감사드린다』고 말하고 『단과대별 동창회를 조직, 단과대동창회장을 이사로 임명해 매월 모이는 이사회가 3백여 마산동문의 유대와 연대감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며 동창회 활동을 설명했다.

趙基一국제관계자문대사는 『모교는 전국적 대학인데 동문들이 너무 서울에서만 활동한다』고 지적하고 인재들이 전국에 골고루 펴져서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기를 희망했다.

金在淳회장은 『경상도니 전라도니 하는 봉건적 잔재에서 벗어나, 권력과 권위를 함께 갖춘 지도자가 필요한 시기』라고 말하고 『각자가 벌거벗었을 때 무엇이 남을 것인지 자문자답하고 서울대인으로서의 인격과 책임감을 갖자』고 당부했다.

졸업식사

진주 지부

지역발전 위한 노력 다짐

앞줄 좌로부터 네번째 진주지부 權회장, 본회 金在淳회장.

진주支部同窓會(회장 權晳珍)는 지난 23일 동방호텔 다이아몬드룸에서 본회 金在淳회장, 鄭宗澤상임부회장, 宋斗灝부회장, 李世震사무총장을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

權晳珍회장을 비롯해 鄭元壽前간호전문대학장, 金 一 치과의원장, 鄭敬泰내과의원장, 金厚根경상대교수, 崔文錫삼현여고교장, 申順澈제일병원장 등 40여명의 동문이 참석한 이날 모임에서 權회장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진주 동문을 격려키 위해 절개의 고장을 방문하신 회장단에 환영의 박수를 보내자』고 말하고 『소외된 지역에서 서울대인이 앞장서 지역발전에 노력하겠으며 총동창회에서도 진주를 기억해 달라』고 부탁했다.

姜信雄총무는 『61년에 창설된 同會는 현재 4백여명의 회원이 테니스·바둑동호회, 등반대회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고 지부 활동을 소개했다.

鄭상임부회장은 『모래알이라 불리는 모교 동창회지만, 진주지부는 다이아몬드동창회』라고 말하고 『장학사업에 특별한 뜻을 가진 분이 있으면 「특지장학금」제도를 소개해 달라』고 부탁했다.

金在淳회장은 『가슴을 두드리며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서 『바둑에서 훈수두는 사람이 아니라 진정한 서울대인으로서의 자존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이 나라를 바른 길로 이끄는 동문이 되자』고 호소했다.

朴晟容부회장 임원초청 간담회

동창회 활성화 방안 논의

참석자들이 진주C.C에서 기념식수를 했다.

금호그룹 朴晟容명예회장(본회 부회장)은 지난 21일 본회 회장단을 초청, 진주C.C 지리산홀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金在淳회장을 비롯해 鄭宗澤상임부회장, 河永基, 李達雨, 宋斗灝, 閔丙晙, 趙南煜, 李金器, 李相禹부회장, 方孝宣, 朴英俊감사, 李禮植약대동창회장, 李吉女의대동창회장, 金讚淑치대동창회장, 李義淑가정대동창회장, 관악회 尹美子, 李乃均이사, 李仁子 前가정대동창회장, 李世震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金회장은 『임원들과 함께 간담회를 가질 자리를 마련해 준 朴晟容부회장께 감사드린다』고 말하고 『사랑하는 나라를 움직이는 모교 동문들이 자존심과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총동창회에서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임원들은 시국현안과 본회 활동방향에 대해 논의했으며, 오전에는 골프를 하며 친목의 시간을 갖기도 했다.

또한 艸石 權純亨동문이 증정한 도자기를 朴부회장에게 감사의 표시로 전달하고, 本會 임원 방문 기념식수를 했다.

안동 지부

새 회장에 裵元煥동문 선출

안동支部同窓會(회장 姜惠遠)는 최근 안동시 동부동 안동문화회관 204호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신임 회장에 裵元煥(60년 獸醫大卒·경안동물병원장)동문(사진)을 선출하고 총괄 부회장에 林雨夏(62년 齒大卒·임치과의원장)동문, 대학담당 부회장에 李英仁(65년 農大卒·안동대교수)동문을 선임했다.

또한 총괄 총무에 金世忠(76년 法大卒·변호사)동문, 대학담당 총무에 洪龍杓(79년 師大卒·안동대교수)동문을 선임했다.

신임 임원들은 올해안으로 사진을 곁들인 회원명부를 제작, 배포하는 한편 동창회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결의했다. 〈元〉

환희, 45.5×38㎝, 아크릴릭, 1995.

미술작품

李 惠 仁 作

〈작가 약력〉
△68년 미대 졸업
△국전 출품(3회 입선)
△혼울전 출품
△미협전 출품
△숙란전 출품
△경남미술전 출품

주 요 목 차

동문 칼럼 ………………………… 9면
캠퍼스의 문화공간이 아쉽다 (金容振)
동문을 찾아서 ………………………… 13면
姜慶植 부총리겸 재경원 장관
기획탐방 ………………………… 14면
우리 장맛 지켜온 샘표식품
모임탐방 ………………………… 15면
한국국제협력단(KOICA)
서울대가족 ………………………… 22면
대구에서 명성 자자한 醫家三代 (申鉉喆)

경대원 동창회

창립 30주년 기념 행사 성황

본회 李聖秀부회장이 金在淳회장을 대신해 축사를 했다.

經營大學院同窓會(회장 李燦河)는 지난 4월 22일 롯데호텔 에메랄드룸에서 본회 李聖秀부회장, 모교 鮮于仲皓총장, 崔松和부총장, 郭秀一경영대학장 등 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30주년 기념행사를 성대히 개최했다.

同會는 이날 모교와 동창회 발전에 크게 기여한 金任植, 金泓殖, 李庸俊, 沈昞求, 金植鉉동문에게 공로패를 증정했다.

또한 張夢仁, 郭厚燮, 成豪慶, 金琥奉, 金亨基, 禹德昶, 朴武益, 金泰球, 白大基, 韓國鍾, 李東喆동문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李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동문 여러분이 미래의 목표를 국가경쟁력 강화에 두고 그 견인차 역할을 해 국가발전에 이바지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본회 李聖秀부회장은 金在淳회장의 축사를 대신해 『오늘의 격변하는 상황속에서 동문 여러분이 크게 뭉치고 힘을 모아 침체일로에 있는 우리 경제에 활력을 넣어달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모교 鮮于仲皓총장의 격려사, 건배 제의에 이어 17명의 국악협회 회원들이 사물놀이, 경기민요 등 특별공연을 펼쳐 흥겨운 시간을 연출했다.

대학원 동창회

유공동문에게 공로패 전달

李회장이 張世憙동문(사진 左)에게 공로패를 전달했다.

大學院同窓會(회장 李光魯)는 지난 4월 17일 모교 교수회관에서 97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80여명의 동문이 참석한 이날 총회에서는 창립25주년을 맞아 그동안 학문 및 동창회 발전에 기여해온 張世憙, 金圭植동문에게 공로패를 전달했다.

李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모교가 대학원 중심대학으로 나아가는데 있어 대학원동창회의 활성화는 꼭 선결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회원들의 끊임없는 편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鮮于仲皓총장은 『동창회의 발전은 학문의 발전, 더 나아가 국가의 발전으로 이어진다』면서 『대학원동창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기원한다』고 말했다.

洪承五대학원장은 『모교는 세계 굴지의 대학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여러가지 개혁을 시도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이러한 발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동문들의 후원이 너무나 절실한 만큼 전폭적인 지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同會는 이날 96년도 결산 및 감사보고, 97년도 예산안 심의를 마치고 제2호 동창회보를 배포했다.

환대원 동창회

회원명부·「도시·환경소식」 발간

環境大學院同窓會(회장 朴重培)는 지난 4월 3일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97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모교 楊秉彝원장을 비롯해 80여명의 동문이 자리를 함께 했으며, 최근 영전한 金建鎬건설교통부 차관, 柳在浩대통령 총무수석비서관, 金學載서울시 부시장이 참석해 인사하는 시간을 가졌다.

同會는 林岡源 전임원장에게 공로패를 전달하고 동창회 활동보고, 96년도 결산보고, 97년도 예산심의, 97년도 동창회 사업계획 등을 논의했다.

이에 따라 장학금을 현재의 3백20만원에서 80만원을 증액한 4백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5월중에 회원 명부를 제작, 동문들에게 발송하기로 했다.

또한 「도시·환경소식」을 지난해와 같이 8회 발간하기로 하고 오는 5월말로 임기가 만료되는 편집위원을 새로 위촉하기로 했다.

행대원 동창회

5월28일 정총 개최

行政大學院同窓會(회장 姜敏求)는 오는 5월 28일 오전7시 소공동 소재 롯데호텔 36층 벨뷰룸에서 제37차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志〉

本報는 5월호(제230호)부터 「동창회소식」란에 지난 94년 서울대출판부가 발행한 「서울대 트리비아(SNU TRIVIA)」 내용을 연재, 동문들에게 모교의 역사와 인물, 건물 및 일화 등을 한눈에 알 수 있도록 퀴즈식 문답풀이로 소개하고자 합니다.

서울대 트리비아

Q1. 모교의 校鳥와 校木은 무엇이며, 언제 지정된 것일까요?

〈교조와 교목의 사진은 본보 21면에 게재〉

A. ① 교조: 白鶴 ② 교목: 느티나무 ③ 1983년 4월 4일

인도네시아 지부
「서울대인의 밤」 준비 한창

인도네시아支部同窓會(회장 裵相璟)는 지난 4월 1일 임원회의를 개최해 오는 10월 9일 자카르타시내에서 1백여명의 동문과 가족들이 함께 하는 「서울대인의 밤」 행사를 열기로 결정했다.

한편 지난 4월 16일 鄭武雄부회장(사진 左)이 본회 사무처를 방문, 李世震사무총장과 「서울대인의 밤」 행사 인사초청 등을 협의하고 연회비 1백만원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鄭부회장은 『올해는 동문들의 우의를 다지기 위해 2회의 골프시합과 12월경에 송년파티를 계획하고 있다』고 말하고 『이번 10월에 열릴 이벤트행사에 총동창회 임원진도 참여해 자리를 빛내 달라』고 덧붙였다.

간호대 동창회
새 홍보이사에 朴誠愛동문

看護大學同窓會(회장 楊銀淑)는 지난 4월 15일 간호대학 3층 교수회의실에서 제206회 실행이사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楊銀淑회장, 李笑雨학장, 朴永淑부학장을 비롯해 金南連, 兪淑子, 李愛珠, 金彩淑, 趙明淑, 宋美順, 李금라, 徐英卿, 金京南, 宋玉子이사가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임기만료된 徐文子동문 후임으로 朴誠愛동문을 신임 홍보이사에 선임하고 동창회 弔旗를 제작해 행사 때마다 활용하기로 했다.

또한 야유회 개최, 시의원을 맡고 있는 李금라 동문의 후원방안 등을 논의했다.

가정대 동창회
임원 상견례 가져

家政大學同窓會(목련회 회장 李義淑)는 지난 3월 29일 서초동 소재 「대원」에서 97년도 제1차 간사회의를 개최했다.

李회장 취임 이후 처음 열린 이번 회의에는 30여명의 임원이 참석했으며, 申尙玉부회장을 비롯한 신임 임원과 기별 간사의 상견례가 있었다.

경과보고, 96년도 이사회 회비 결산보고가 있은 후, 참석자들은 이사회비를 1년치 선납 혹은 분납을 권장하기로 하고 회비를 회원들의 관혼상제에는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오는 5월 31일에 같은 장소에서 제2차 간사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미대 동창회
배너·弔旗 대여

美術大學同窓會(회장 李信子)는 최근 동창회 배너(Banner)와 謹弔旗를 제작했다.

동문모임을 갖거나 빈소를 마련해야할 경우에는 동창회 사무실(전화 701-8065)이나 모교 서양화과 사무실(전화 880-7480)로 문의하면 빌려준다.

사용 후에는 모교 서양화과 사무실로 반납하면 되고 동창회 弔旗는 동문과 손위 직계가족에 한해서만 이용이 가능하다.

또한 同會는 97년 3월호 동창회보를 배포하고 사무국장에 金春洙동문, 사무차장에 元榮泰동문을 선임했다.

한편 가을쯤에 장학기금 마련을 위한 전시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상반기중 주소록 발간을 계획하고 있어 동문들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다.

-바로 잡습니다-

지난호(제229호) 5면 정기총회 경품 협찬자 명단 중 삼부토건 趙南煜회장이 「경주코오롱호텔」이 아닌 「경주콩코드호텔」 숙식권을 협찬해 주셨기에 바로 잡습니다.

李信子 미술대학 동창회장
갤러리 「우덕」 개관기념 작품전

좌로부터 네번째 李壽成, 鮮于仲皓, 李信子동문, 金在淳회장.

미술대학동창회장인 李信子(55년 美大卒·덕성여대 명예교수)동문이 지난 4월 18일 서초구 잠원동 한국야쿠르트빌딩 2층 갤러리 「우덕」의 개관식을 가졌다.

본회 金在淳회장을 비롯해 모교 李壽成전임총장, 鮮于仲皓총장, 崔松和부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개관식에서 李동문은 인사말을 통해 『예술을 사랑하는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어 흐뭇하다』고 말하고 『앞으로 해외문화정보를 홍보하는 등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고 싶다』고 피력했다.

한편 李동문은 5월 7일까지 갤러리 개관 기념으로 「山의 정기」를 주제로 기하학적 색면구성이 돋보이는 타피스트리(TAPESTRY) 작품 10여점을 전시했다.

40여년간 우리나라 섬유미술을 정착시키고 일구어낸 李동문은 국전 초대작가, 한국섬유미술가회 회장, 문화재위원회 전문위원, 「미술의 해」 조직위원장 등을 역임하고 서울시 문화상, 대한민국 문화예술상 등을 수상한 바 있다. (갤러리 「우덕」 TEL 3449-6071)

상대 동창회
97년도 회원명부 제작 배포

商科大學同窓會(회장 張禮準)는 최근 97년도 회원명부를 발간했다.

지난 94년 12월 이후 2년 만에 발간된 이번 명부는 1만5천여명에 이르는 상대 출신 동문들의 현황이 자세히 수록됐다.

同會는 4월 중순부터 사무국을 통해 1부당 3만원의 가격에 판매하고 있다. (위치: 서울 중구 남대문로5가 120 국제보험빌딩 2508호 전화 753-2277)

우편으로 구입을 원하는 동문은 우송비를 포함, 3만3천원을 입금(서울은행 남산지점 11501-0029421 예금주 장예준)하고 사무국으로 성명, 졸업회수, 받아볼 주소를 알려주면 입금 확인이 되는대로 우송해 준다. (志)

정치·외교학과

영전 동문에 축하패 전해

金英國 공동회장은 동문 각자가 책임감을 갖자고 역설했다.

정치·외교학과동창회(공동회장 金榮國·姜賢旭)는 지난 15일 상공회의소 상의클럽에서 50여명의 동문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이사회 및 임시총회를 가졌다.

金弘宇(66년卒·모교교수)동문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이사회에서는 尹河珽(51년卒·前외무부차관)동문 외 33명의 상임이사와 尹天柱(47년卒·前모교총장)동문 외 5백76명의 이사명단을 발표하고 97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임시총회에서는 高 建(60년卒·국무총리), 柳宗夏(59년卒·외무부장관), 姜賢旭(61년卒·환경부장관), 李 進(64년卒·웅진전문대 학장), 金學俊(65년卒·인천대학교 총장), 姜雲太(72년卒·내무부장관), 孫鶴圭(73년卒·보건복지부장관)동문에게 영전 축하 기념패를 전달했다.

高 建동문은 姜賢旭회장이 기념패를 자기가 주고 자기가 받는다고 말해 동문들의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다.

金榮國회장은 『동문들이 총리·외무·내무·환경·보건복지·대학총장·학장 등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책임을 맡은 적이 없었다』고 말하고 『자랑스런 정치·외교학과 동문이 되도록 우리 각자가 노력하자』며 폐회사에 갈음했다.

한편 同會는 동창회 명부를 제작하기 위해 동문들이 연락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전화/팩스:887-4375)

독어교육과

새 총무이사 등 선임

독어교육과동창회(회장 安成權)는 지난 4월 12일 기별이사회를 가졌다.

이날 모임에서는 동창회의 각 부서별 신임이사 선출과 동창회 사업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

同會는 총무이사에 權禊鉉동문, 기획이사에 王致賢동문, 섭외이사에 李英錫동문, 영업이사에 金누리동문, 장학이사에 權美愛동문을 각각 선출하고 동창회 주소록 제작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신문학과

주소록 제작에 동문 협조 요망

신문학과동창회(회장 朴承寬)는 지난 4월 10일 한국일보사 13층 송현클럽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朴회장의 인사말로 시작한 총회는 李建嫵총무의 96년도 결산 및 사업보고에 이어, 朱東晃부회장이 이사회에서 결정된 신문대학원동창회와의 통합취지를 설명하고 안건으로 상정했다.

同會는 두 동창회간 통합을 의결하고, 학과명칭이 3월 1일자로 신문학과에서 언론정보학과로 공식변경됐으니 동창회 명칭도 신문대학원과 통합 이후에 「언론정보학(과)동창회」(가칭)로 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회장에 金鐵洙(85년卒·디딤돌 출판사)동문을 선출하고 남은 임원선출과 통합과정에 필요한 포괄적인 권한을 신임회장에 일임했다.

한편 同會는 동창회 주소록을 발간하기 위해 동문들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다. (홈페이지 주소: http://prome.snu.ac.kr/~www_comm 전화:880-6466 팩스:873-1451)

신문학과 신임 金鐵洙회장이 취임 인사를 했다.

보대원 치의학동우회

창립준비위원장 선출

지난 4월 8일 신당동 체스터 프라이드에서 보건대학원 치의학동우회 모임이 있었다.

치의학을 전공하고 보건대학원을 거친 동문들로 구성된 이 모임은 친목도모 및 학술 세미나 등을 위해 비공식적 모임을 오래전부터 가져왔다.

이번 모임에서는 李厚丞, 趙榮植, 韓金亨, 鄭光洙, 洪秀蓮, 金惠連, 洪美熹동문에게 졸업기념패를 전달하고 신입회원을 환영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회원들은 공중보건 치의학의 현황과 미래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으며 차제에 「보건대학원 치의학동우회」(가칭)라는 이름으로 졸업회원을 광범위하게 포괄하는 정식모임을 발족시키자는 의견과 함께 준비위원장에 李厚丞(67년 齒大卒·96년 保大院卒·치과의원장)동문을 추대했다.

직장 및 자택주소 변동시 본회 사무처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주위의 동문가운데 동창회보나 안내문을 받아보지 못하는 분들의 연락처도 함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화 702-2233 팩스 703-0755)

의대 27회

河星煥회장 취임

의대27동기회는 최근 신임회장에 河星煥동문을 선출하고, 오는 98년에 在美 동문 주관으로 졸업25주년 기념행사를 미국에서 갖기로 했다.

또한 同會는 지난 86년 김포공항에서 폭탄테러로 희생된 故 金峰德동문의 令愛 김연진양의 대학학비를 전액 부담키로 했다.

불어교육과

학회집 발간 지원

불어교육과동창회(회장 李起台)는 최근 상제리제 연회실에서 60여명의 동문들이 모인 가운데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李회장은 『지난해 10월 총동창회 주최 등산대회에서 보여준 동문들의 참여의식을 살려 모든 행사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同會 지원으로 프랑스어문교육학회에서 학회집 제5호를 발간했으며 여기에는 張承一, 高才正, 李京海동문 등의 논문이 실려있다.

사무처 편집부에

金滋媛기자 임용

동창회 사무처는 지난 5월 1일자로 편집부 수습기자에 金滋媛동문(사진)을 채용했다.

93년 인문대학 언어학과에 입학한 金동문은 학과신문 제작에 참여해오다 지난 2월 26일 졸업했다. 〈元〉

전기공학과

신임 회장에 徐廷旭동문

전기공학과동창회(회장 文熙晟)는 지난 24일 무역회관 51층 무역클럽에서 30여명의 동문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96년도 결산과 97년도 예산, 사업보고가 있었으며 임원선출을 통해 신임회장에 徐廷旭(57년卒·SK텔레콤사장)동문을 선출하고 총무에 朴鍾根(73년卒·모교교수)동문을 선임했다.

李達雨동문(본회 부회장)은 『나라 경제의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방법은 우리 모두의 노력뿐』이라고 말했으며 韓松畔동문은 우리나라 공학교육의 문제점과 개선점을 지적했다.

원자핵공학과

발전기금 모금위원회 구성키로

원자핵공학과동창회(회장 表相基)는 지난 4월 3일 강남 한정식당에서 70여명의 동문들이 참여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임원선출을 통해 회장에 金三坤(68년卒·한국전력기술전무)동문(사진)을 선출했다.

신임 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한 사람의 열 걸음보다는 열 사람이 한 걸음을 걷는 동창회가 바람직하다』며 많은 동문들의 참여를 부탁했다.

同會는 동창회 활성화를 위해 전임회장을 고문으로 추대하고 이사를 소속기관별, 근무지역별로 안배해 구성했다.

또한 「동창회 발전기금 모금위원회」를 구성해 기금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선출된 임원은 다음과 같다.

△고문: 蔡星基, 梁昌國, 表相基동문 △부회장: 李重載, 金時煥, 殷榮洙, 安德煥, 朴君哲동문 △감사: 趙南振, 辛元基, 李在己동문 △총무: 姜選求, 吳根培, 韓相吉동문

모임예정

산업공학과

5월 18일 모교 방문

산업공학과동창회(회장 李在奎)는 오는 5월 18일 오전 11시30분 모교 자연대운동장에서 홈커밍 행사를 갖는다. (문의전화: 880-7180)

약대 11회

졸업 40주년 행사

약대11동기회(회장 李甲烈)는 오는 5월 24, 25일 양일간 졸업40주년 기념 행사를 설악산에서 가질 예정이다. (문의전화: 3453-3300)

영어교육과

5월 26일 정총 계획

영어교육과동창회(회장 鄭貴燮)는 오는 5월 26일 오후 7시 역삼동 상록회관에서 정기총회를 갖는다.

토목공학과

6월 1일 총회 개최

토목공학과동창회(회장 成百詮)는 최근 봄호 동창회보를 발간했다.

이번 회보에는 96년 「모교 방문의 날」 행사 결산과 동문들의 근황이 실려있다.

한편 同會는 오는 6월 1일(日) 오전 10시30분 모교 교수회관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문의전화: 880-7358)

이순테니스회

6월 6일 정기대회

耳順테니스회(회장 馬景錫)는 4월 5일 모교 교수테니스코트에서 개최키로 했던 제22회 대회를 우천으로 6월 6일로 연기했다.

금속공학과

회장에 羅亨用동문 추대

금속공학과동창회(회장 張炳洙)는 지난 18일 논현동 소재 「만리장성」에서 1백여명의 동문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吳奎煥총무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정기총회는 張회장의 인사말에 이어 朱承基동문의 모교 현황 보고, 吳총무의 동창회 활동 보고가 있었고, 96년도 결산과 97년도 예산이 통과됐다.

한편 同會는 임원선출을 통해 羅亨用(58년卒·모교교수)동문을 신임회장에 선출했다.

또한 기별로 2~4명의 부회장을 선임하고, 감사에 孟 涉, 姜 卓동문, 총무에 吳奎煥동문을 각각 선임했다.

교수테니스회

춘계대회 통해 친목 다져

교수테니스회(회장 梁喆學)는 지난 19일 모교 테니스코트에서 모교 총장과 부총장, 그리고 회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춘계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회결과는 다음과 같다.

△A조 우승: 全泰源(체육교육과)·鄭相俊(영문학과)교수, 준우승: 申仁湜(체육교육과)·梁喆學(화학과)교수 △B조 우승: 金秀行(경제학부)·李之舜(경제학부)교수, 준우승: 張秉郁(농공학과)·李喜根(자원공학과)교수

화학교육과

제12호 회보 발행

화학교육과동창회(회장 申東澈)는 최근 제12호 동창회보를 발간했다.

이번 회보에는 지난해 10월 출범한 제6기 동창회장의 취임사와 2년간의 사업계획이 실려있다.

한편 同會는 24명의 신입회원들에게 탁상시계를 선물하고 동문들의 애사에 사용할 弔旗를 제작, 학과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다.

의대 20회

졸업기념 문집펴내

의대20동기회(회장 李孝杓)는 최근 졸업30주년 기념문집을 발간했다.

「30년 세월」이란 제목으로 동기들의 글과 가족사진을 곁들여 만든 이 문집에는 4·19와 5·16을 겪은 학부시절의 회고와 사회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시대상황들이 배어 있다. (元)

느티나무광장

朴 世 熙
모교 자연대 교수

나라 좀 사랑합시다

외국의 신문이나 TV에 나오는 우리나라 뉴스는 대체로 궂은 일뿐이다. 지난 일년 동안만 해도 남북이 서로 짜기라도 한 것처럼 나라 망신하는데 경쟁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런데 어느 날 술좌석에서 어느 가까운 외국인 교수가 『나는 너희 국민들을 참으로 존경한다』고 말했다. 물론 어느 외국에서의 일이다. 그 이유를 묻는 나에게 그는 담담히 말했다.

『전직 대통령을 두 명이나 감옥에 보낼 정도로 위대한 국민이 이 세상에 어디에 있는가?』

이 말이 내포하고 있는 모든 의미를 다 따질 생각은 없다. 그렇지만 체면과 염치를 중히 여기고 망신을 금기로 여겨온 우리 풍토에서 자란 나로서는 너무나 뜻밖이었다.

제 몫 찾기에만 급급한 현 세태

언론에 나타나는 우리 국민은 참으로 많이 변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전통적인 은근과 끈기는 어디 갔으며, 체면과 염치는 어디로 갔을까? 오늘날에는 도덕군자나 애국지사 연하는 이도 없고, 반공투사나 새마을 지도자 같은 사람도 별로 많아 보이지 않으며, 그 수많은 민주화 운동의 투사들도 빛이 바랜지 오래다. 모두 못된 부잣집 유산 싸움에서처럼 제 몫 찾기에만 열중하고 있는 느낌이다. 또 정이 많고 한이 많다는 우리 민족이 서로 한을 확대 재생산하면서, 사회의 갈등을 키워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실제로 언론은 사회를 반영한다고 하지만, 언론이 그려내는 현실은 극히 작은 일부분이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정직하고 근면하며, 대부분의 학생들은 현명하고 공부를 열심히 하며, 경제인들 못지 않게 많은 학자들도 국제 경쟁력을 키우고 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아직도 희망이 있다.

현명한 국민 지도할 생각 버려야

지금은 나라가 총체적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한다. 또 21세기를 앞둔 민족의 앞날이 극히 불안하다는 사람도 많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지난 한세기 동안 우리 민족이 위기에 처하지 않았던 때가 얼마나 되는가? 경제가 후퇴하면 전처럼 덜 쓰고 덜 먹으면 된다는 소박한 생각은 당연하다. 한편 어차피 21세기는 건실하게 자라나는 젊은이들의 시대이고 그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한 우리의 세계화는 저절로 되게 되어 있다.

위기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정치면에 잘 등장하는 사람들의 덕목에 있다. 체면과 염치를 알고 좀 더 정직해지고, 본분을 바로 지키되, 현명한 국민들을 지도할 생각은 버리라는 것이다.

그 밖의 국민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대답은 명백하다. 『우리 서로 나라 좀 사랑합시다』

〈본보 논설위원〉

동문칼럼

캠퍼스의 문화공간이 아쉽다

金容振(57년 音大卒)한국음악협회 이사장

모교는 70년대 초 종합화 계획에 따라 옛 관악 컨트리클럽 자리에 웅장한 건물이 들어서면서 민족의 대학이자 배움의 요람으로 자리잡기에 이르렀다. 당시 많은 사람들은 누구나 그 웅장하고 아름다운 주변환경에 감탄했고 특히 모든 서울대인은 민족의 대학으로서의 크나큰 긍지를 가졌었다.

그 후, 모교는 국가의 급속한 경제 성장과 더불어 비약적인 발전을 계속해 왔으며 이러한 결과 오늘날 자타가 인정하듯이 「세계속의 서울대학교」로 발돋움하게 되었다.

부속건물 너무 세워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각종 연구소 및 기타 많은 부속건물들이 순환도로 주변에 오밀조밀하게 들어서서 이제는 그 넓었던 캠퍼스에 건물하나 더 들어서기가 벅차게 되었다. 아름다웠던 주변환경은 서서히 사라지고 이제는 마치 무계획한 도시의 길거리를 방불케 할 정도로 악화되어 가고 있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기만 하다.

요즈음 우리 주변에서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자」는 얘기들을 많이 한다. 지나간 농경시대의 삶이란 단지 의·식·주의 해결에만 주력하는 것이었으나 현대인의 삶이란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수준 높은 문화생활을 요구한다.

삶의 활력소 돼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는 여러가지가 있겠으나 우선 우리 주변을 좋은 환경으로 유지하고 또한 각종 문화를 접할 수 있는 다양하고 적절한 공간이 있어서 수준 높은 정신 문화를 접함으로써 각박한 현대생활에 신선한 활력소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민족의 대학이며 배움의 요람인 모교의 캠퍼스를 보다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안목으로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이 되도록 유지 및 개선하고 이에 수준 높은 문화를 접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 공간을 적절히 확보하여 이를 발전시키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본다.

쾌적한 환경 유지를

이러한 합리적이고 창의적인 지혜가 점차로 현실화되어 나타난다면 지역사회는 물론이고 국가의 정책에도 많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서는 문화의 세기인 21세기에 「세계속의 서울대학교」로서의 그 위상이 보다 높아질 것이다.

동정

수 상

▲**高光昱**(51년 醫大卒·모교명예교수)= 최근 홍콩에서 열린 제9차 아시아소아과학회에서 「아시아 지역에서 훌륭한 소아과 의사상」을 받음.

▲**申光淳**(56년 獸醫大卒·모교교수)=「세계보건의 날」 기념식에서 「국민훈장 모란장」을 받음.

▲**朴健雨**(61년 法大卒·駐美대사)= 최근 세계문제협의회(WAC)가 선정한 「올해의 외교관상」 수상자로 선정됨.

▲**朴暾緖**(62년 工大卒·아주대교수)= 최근 「대한건축학회」 학술상을 받음.

▲**金種心**(65년 文理大卒·동아일보 논설위원)= 최근 서울언론인클럽 언론상 신문칼럼상을 받음.

▲**朱京植**(69년 藥大卒·세종대 행정대학원장)= 최근 공직부문 「약의 상」을 받음.

▲**南善顯**(72년 獸醫大卒·KBS보도국 과학부장)= 최근 한국과학재단과 한국과학기자클럽이 공동으로 주관한 제1회 과학기자상 시상식에서 과학기자상을 받음.

▲**成德洙**(72년 商大卒·신광기업 대표이사) = 최근 「사단법인 바른경제 동인회」로부터 「바른기업인상」을 받음.

▲**洪廷善**(79년 人文大卒·인하대교수)= 최근 「현대문학상」을 받음.

▲**張慶作**(33기 AMP·웨스틴조선호텔 사장)= 제25회 「보건의 날」 기념식에서 대통령상을 받음.

이동·선임

▲**玄勝鍾**(43년 法大卒·건국대 이사장)= 최근 유림대표들의 입법기구인 성균관 평의원회의에서 성균관 건립 6백주년 기념사업회장에 추대됨.

▲**白樂皓**(52년 音大卒·모교명예교수)= 최근 한국인으로는 처음으로 아일랜드에서 열리는 Dublin국제피아노콩쿠르 심사위원으로 위촉됨.

▲**申東憲**(49년 工大入·프로덕션대표)= 최근 「'97 서울국제만화페스티벌(SICAF)」 조직위원에 선임됨.

▲**楊銀淑**(54년 看護大卒·간호협회 감사·看護大同窓會長)= 최근 여성연합회 회계이사에 선임됨.

▲**朴承宰**(55년 工大卒·샘표식품공업사장)= 최근 샘표식품공업(주) 부회장으로 승진함.

▲**金在鎬**(55년 法大卒·남양항운회장)= 최근 전경련 최고경영자과정 총동문회 제15대 회장에 선출됨.

▲**咸泰墉**(56년 工大卒·前장기신용은행장)= 최근 기아포드할부금융 회장(비상근)에 취임함.

▲**洪學淳**(57년 師大卒·한성과학고교장)= 최근 면목고등학교 교장에 취임함.

▲**吳世柱**(59년 商大卒·아남그룹 기획조정실고문)= 최근 한미아남할부금융 사장에 취임함.

▲**景商鉉**(56년 工大入·前정보통신부장관) = 최근 미국 넥스트웨이브사로부터 수주한 통신운영시스템 구축사업을 전담할 한국정보통신의 자회사인 한국소프텔 초대회장에 선임됨.

▲**金炯英**(60년 商大卒·경남은행장)= 최근 경남금융경제연구소 회장에 취임함.

▲**李鍾珪**(61년 工大卒·단국대 교수)= 최근 한국지반공학회 제7대 회장에 취임함.

▲**金光宇**(61년 醫大卒·모교교수)= 최근 제16대 대한의학회장에 취임함.

▲**金光雄**(62년 法大卒·모교교수)= 최근 부정방지대책위원회 위원에 위촉됨.

▲**安恭爀**(62년 法大卒·前신용보증기금이사장)= 최근 국민투자신탁증권 회장에 취임함.

▲**襄茂基**(62년 商大卒·모교교

수)= 최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에 선임됨.

▲**張文鉉**(63년 工大卒·前포스데이터 사장)= 최근 동방금속 사장에 취임함.

▲**李正仁**(63년 工大卒·모교교수)= 최근 모교 공과대학 부설 에너지·자원 신기술연구소장에 취임함.

▲**金漢都**(63년 文理大卒·부산대교수)= 최근 부산대학교 교무처장에 취임함.

▲**姜原一**(63년 法大卒·변호사) = 최근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신임 위원장에 위촉됨.

▲**宋基方**(63년 法大卒·변호사) = 최근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부위원장에 선임됨.

▲**朴塤晋**(63년 師大卒·前북한문제조사연구소 연구위원)= 최근 내외통신 사장에 취임함.

▲**蘇玄秀**(63년 師大卒·서강대교수)= 최근 서강대학교 대학원장에 취임함.

▲**孫蓮秀**(63년 師大卒·KIST 응용과학부장)= 최근 제32대 대한화학회 회장에 선출됨.

▲**趙璇衡**(63년 師大卒·청주교대교수)= 최근 한국초등과학교육학회 회장에 선출됨.

▲**徐相錄**(63년 商大卒·중소기업연구원 부원장)= 최근 중소기업연구원 원장으로 승진함.

▲**申啓休**(63년 音大卒·인천교대교수)= 최근 인천교육대학교 교무처장에 취임함.

▲**成耆重**(64년 文理大卒·前포스데이터사장)= 최근 한국소프트텔리시스 사장에 취임함.

▲**柳常烈**(64년 法大卒·건설교통부차관)= 최근 국토개발연구원장에 취임함.

▲**朴昌善**(65년 工大卒·前삼성중공업부사장)= 최근 디자인신세계 대표이사 사장에 취임함.

▲**崔禮煥**(65년 農大卒·강원대교수)= 최근 한국농공학회 제21대 회장에 선출됨.

▲**金好俊**(65년 文理大卒·서울신문 논설위원실장)= 최근 서울신문 논설주간에 취임함.

▲**李敏燮**(65년 文理大卒·前문체부장관)= 최근 동아그룹 산하 동아갤러리 관장에 취임함.

▲**鄭明世**(65년 文理大卒·한국표준과학연구원장)= 최근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원장에 연임됨.

▲**金榮彬**(65년 法大卒·前수출입은행장)= 최근 주택사업 공제조합 이사장에 취임함.

▲**李東洙**(65년 商大卒·한컴전자 사장)= 최근 마포방송 사장에 취임함.

▲**金鍾奭**(65년 獸醫大卒·한강환경관리청장)= 최근 국립환경연구원장에 취임함.

▲**李鍾一**(65년 音大卒·이스트챔버오케스트라 음악감독)= 최근 모스크바 국립차이코프스키음악원에서 지휘과를 수료하고 차이코프스키 오케스트라 부지휘자에 임명됨.

▲**奉鍾憲**(66년 文理大卒·기상청장)= 최근 대한원격탐사학회 제7대 회장에 선출됨.

▲**金忠奎**(66년 師大卒·내무부 지방행정연수원장)= 최근 대통령 행정수석실 지방행정비서관에 임명됨.

▲**李忠雨**(66년 商大卒·벽산건설상무)= 최근 벽산화학 대표이사 전무로 승진함.

▲**丘月煥**(67년 文理大卒·연합통신 출판국장·本報論說委員)= 최근 연합통신 총무·출판담당 상무이사로 승진함.

▲**蔣正幸**(67년 文理大卒·서울신문 경제부장)= 최근 서울신문 편집국장으로 승진함.

▲**李文圭**(67년 文理大卒·삼삼종금부사장)= 최근 한국물산회

〈11면에 계속〉

대한민국 과학기술상 수상

韓文熙·陳大濟·宋相庸동문

과학기술처가 발표한 올해 대한민국과학기술상의 과학상은 韓文熙(57년 師大卒·생명공학연구소 연구위원)동문에게 돌아갔다. 또 기술상에는 陳大濟(74년 工大卒·삼성전자 반도체총괄부사장)동문, 진흥상에는 宋相庸(59년 文理大卒·한림대교수)동문이 선정됐다.

과학상의 韓동문은 효소공학·응용미생물학·유전공학 분야에서 1백14편의 학술논문발표와 30건의 국내외 특허를 받는 등 생명과학연구의 공로를 인정받았다.

기술상의 陳동문은 지난 80년대 후반 자체기술로 4메가D램·16메가D램을 개발한데 이어 세계 최초로 2백56메가D램 및 1기가D램을 개발했다.

진흥상을 받은 宋동문은 과학사·과학철학·과학기술과 사회 등의 분야에서 연구와 교육에 헌신해왔으며 과학기술의 대중화를 위한 논문·사설을 1천편이나 발표하는 등 한국과학의 해외소개와 환경교육에 남다른 역할을 한 공로로 수상하게 됐다.

〈元〉

〈10면에 이어〉

장에 취임함.

▲**林鍾律**(67년 法大卒·성균관대교수)=최근 노사관계개혁위원회 상임위원에 선임됨.

▲**李永一**(67년 商大卒·현대종금부사장)=최근 현대기술투자 대표이사 사장에 취임함.

▲**朴常圭**(68년 工大卒·아남그룹 해외담당상무)=최근 아남전자 대표이사 부사장으로 승진함.

▲**李建榮**(68년 工大卒·국토개발연구원장)=최근 교통개발연구원 신임 원장에 취임함.

▲**禹弘濟**(68년 文理大卒·서울신문 편집국장)=최근 서울신문 논설위원실장에 취임함.

▲**李鍾德**(68년 文理大卒·대홍기획이사)=최근 대홍기획 상무이사로 승진함.

▲**金仁洙**(68년 法大卒·서울고법 부장판사)=최근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에 위촉됨.

▲**李昌植**(68년 法大卒·현대증권고문)=최근 국민투자신탁증권 대표이사 사장에 취임함.

▲**金周煥**(68년 師大卒·동국대교수)=최근 동국대학교 교무처장에 취임함.

▲**梁萬基**(68년 商大卒·재정경제원 국세심판소 상임심판관)=최근 ASEM준비기획단 사업추진본부장에 선임됨.

▲**柳福模**(69년 工大卒·연세대교수)=최근 「대한토목학회」 회장에 취임함.

▲**鄭寬鎭**(69년 工大卒·호남석유화학이사)=최근 호남석유화학 상무이사로 승진함.

▲**尹寶玉**(70년 法大卒·인하대법정대학장)=최근 인천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에 위촉됨.

▲**玄在賢**(71년 法大卒·동양그룹회장·本會副會長)=최근 4년 임기의 한국기원 제13대 이사장에 재선임됨.

▲**左承喜**(71년 商大卒·KDI선임연구위원)=최근 한국경제연구원 원장에 취임함.

▲**金熙重**(71년 商大卒·경향신문 정보사업본부장)=최근 경향신문 기획조정실장으로 자리를 옮김.

▲**李啓植**(71년 商大卒·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최근 한국재정학회 회장에 선출됨.

▲**高炅奭**(72년 師大卒·인천교대교수)=최근 인천교육대학교 학생처장에 취임함.

▲**金基道**(72년 新大院卒·前국회의원)=최근 경원대학교 객원교수로 임용돼 「첨단 정보화 시대의 정치와 언론」을 주제로 강의함.

▲**朴進善**(73년 工大卒·샘표식품공업전무)=최근 샘표식품공업(주) 대표이사 사장으로 승진함.

▲**金仁圭**(73년 文理大卒·KBS취재주간·本報論說委員)=최근 「한국프레스클럽」운영위원에 위촉됨.

▲**李正植**(73년 商大卒·삼보컴퓨터사장)=최근 삼보컴퓨터 부회장겸 신설된 그룹경영조정실장에 취임함.

▲**李금라**(74년 看護大卒·서울시의원)=최근 서울시의회 생활환경위원장에 선임됨.

▲**吳海石**(75년 工大卒·숭실대교수)=최근 숭실대학교 부총장에 취임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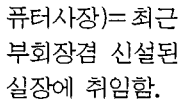
▲**朴在東**(76년 美大卒·우리만화발전을 위한 연대모임대표)=최근 「'97 서울국제만화페스티벌」 조직위원에 선임됨.

▲**姜吉鎬**(78년 社會大卒·계명대교수)=최근 영남대학교 교수로 부임함.

▲**金永顯**(82년 人文大卒·소설가)=최근 실천문학 대표이사에 취임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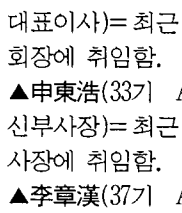
▲**鄭日燮**(83년 工大卒·삼성항공산업 수석연구원)=최근 영남대학교 교수로 부임함.

▲**鄭八道**(1기 AIP·홍인 사장)=「청소년선도위원」「갱생보호위원」「보호관찰위원」 등으로 구분, 추진해 오던 민간단체의 범죄예방 활동을 체계화하기 위해 세 단체를 통합한 「법무부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 안양만안지구협의회장에 추대됨.



▲**崔鉉烈**(3기 AMP·대한농구협회장)=최근 제2회 부산동아시아경기대회(5월 10~19일) 한국선수단장에 선임됨.

▲**曺圭鎬**(6기 AIP·아시아자동차부사장)=최근 (주)아시아자동차 판매 초대 사장에 취임함.



▲**林佑根**(7기 AIP·한성기업사장)=최근 원양어업협회 회장에 선임됨.

▲**李 昌**(11기 AMP·前한통엔지니어링 회장)=최근 엔케이그룹 상임고문에 위촉됨.

▲**李憲國**(13기 AMP·동국합섬부회장)=최근 동국무역그룹 부회장에 취임함.

▲**柳熙潤**(15기 AMP·한국제지공업협동조합이사장)=최근 한국포장진흥원 초대원장에 취임함.

▲**李來炘**(25기 AMP·현대건설사장)=최근 한국CM협회 초대회장에 선출됨.

▲**徐淸源**(26기 AMP·국회의원)=최근 한·일협정비준 반대데모를 주도했던 이른바 「6·3」세대 출신 인사들의 모임인 「6·3동지회」 회장에 추대됨.

▲**鄭度彦**(28기 AMP·일양약품대표이사)=최근 일양약품 부회장에 취임함.

▲**申東浩**(33기 AMP·前한국통신부사장)=최근 한국PC통신 사장에 취임함.

▲**李章漢**(37기 AMP·종근당회장)=최근 한국생물산업협회 제3대 회장에 선임됨.

▲**張孝林**(38기 AMP·삼성중공업건기부문 부사장)=최근 삼성중공업 건기부문 대표이사로 승진함.

행사·출간

▲**李應百**(49년 師大卒·한국수필문학진흥회장)=최근 제15회 현대수필문학상 시상식을 가짐.

▲**張禮準**(49년 商大卒·상우회회장·商大同窓會長)=최근 사무실 이전. (주소:마포구 도화동 538번지 성지빌딩 1415호. 전화:717-4460)

▲**白樂晲**(49년 醫大卒·인제대총장·本會 副會長)=최근 호주 Curtin 대학과 교수, 학생교환 및 공동연구를 위한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함.

▲**金吉男**(51년 文理大卒·Miracle Cup Liquid 연구회 이사)=최근 일본의학협회에서 주최한 「요로법」 강연회에 참석함.

▲**閔丙哲**(52년 醫大卒·아산재단 서울중앙병원장)=최근 울산의대 사회의학연구소와 공동주최로 「인간복제」에 관한 심포지엄을 개최함.

▲**白承龍**(53년 醫大卒·단국대학부속병원장)=최근 새 병원 문화를 이끌어 갈 단국대학병원보 「건강과 행복」 창간호를 발간함.

▲**李基文**(53년 文理大卒·모교명예교수)=최근 국립국어연구원에서 「국어사전을 생각한다」라는 주제로 강연함.

▲**朴晟容**(50년 文理大入·금호그룹 명예회장·本會副會長)=최근 도서출판 금호문화를 통해 「금지된 지식 1」(로저샤툭 지음, 조한욱 옮김)을 출간함.

▲**鄭喜卿**(55년 師大卒·국회의원·本會副會長)=최근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창립대회에 참석함.

▲**金貞姬**(56년 文理大卒·Miracle Cup Liquid 연구회장)=최근 일본의학협회에서 주최한 「요로법」 강연회에 참석함.

▲**趙光濟**(56년 法大卒·前스페인대사)=최근 변호사 개업. (주소:서초구 서초동 1305-2 유화빌딩 5층. 전화:539-1517)

▲**姜晋求**(57년 工大卒·삼성복지재단이사장·本會副會長)=최근 제주도에서 「제주 삼성어린이집」 개원식을 가짐.

▲**金元主**(57년 法大卒·한국환경법학회장)=최근 국립의료원에서 「環境稅」를 주제로 한·일 학술연구발표회를 개최함.

▲**李世中**(57년 法大卒·환경운동연합대표)=최근 금난새 수원시향 지휘자를 초청, 「자연의 소리, 생명의 노래」라는 주제로 제6회 환경음악회를 개최함.

▲**李吉女**(57년 醫大卒·의료법인 길병원 이사장·醫大同窓會長)=최근 인터넷을 통해 무료 원격진료 및 의학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 병원」을 개설함.

▲**張翼龍**(58년 工大卒·한국섬유산업연합회장·本會副會長)=최근 한국섬유산업연합회 창립 22주년 기념식을 가짐.

▲**鄭宗澤**(58년 法大卒·충청전문대학장·本會常任副會長)=최근 청주산업단지관리공단 주최로 열린 「정도영 금강환경관리청장 초청 간담회」에서 환경을 주제로 강연함.

▲**李漢雄**(58년 商大卒·신용협동중앙회장·本會副會長)=최근 미국 메디슨에서 열린 세계신협협의회 집행위원회에 참석함.

▲**朴嬪實**(60년 醫大卒·서울시

〈12면에 계속〉

20년 세월 화폭에 담아

李鍾穆·曺德鉉·崔震旭동문

美大 76학번 동기생인 李鍾穆(이화여대교수)·曺德鉉(이화여대교수)·崔震旭(추계예술대교수)동문 3명이 함께 「이십년 후」라는 제목으로 지난달 17일부터 30일까지 신사동 갤러리 유로에서 전시회를 가졌다.

세 동문은 각기 분야와 추구하는 방향도 다르지만 20년전 화가의 꿈을 안고 미술대학의 문을 두드렸던 같은 기분으로 다시 뭉쳤다.

李동문은 유려한 물의 흐름이 돋보이는 「물처럼」 등 추상 한국화를, 曺동문은 나무상자속에 어린이의 얼굴을 그린 캔버스를 넣어둔 「대화」 등 설치미술을, 崔동문은 탁자 위의 정물을 담은 「화가」 연작 등을 전시했다.

최초로 선상오페라 공연

콜로라투라 曺秀美동문

세계적인 여류 성악가 曺秀美(81년 音大入) 동문이 오는 9월 유람선에서 공연되는 오페라에 주인공으로 출연할 예정이다.

9월 1일부터 10일간 초대형 유람선인 「노르웨이」호에서 모짜르트의 오페라 「後宮으로부터의 탈출」이 공연될 예정이며 선상에서 오페라전곡이 축소없이 그대로 공연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안토넬로 알레만디가 지휘를 맡고 유로파 교향악단과 호흡을 맞출 이번 공연에는 曺동문과 모짜르트 전문 테너 한스 페터 블로슈비츠가 각각 남녀 주인공으로 출연한다.

〈元〉

〈11면에 이어〉

대학동창협의회장)=최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여고동창 협의회와 공동으로 「정보사회의 여성의 역할」을 주제로 강연회를 가짐.

▲任貞彬(61년 家政大卒·한국가정생활개선진흥회장)=최근 「오늘의 가정,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창립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함.

▲金炳翼(61년 文理大卒·문학과 지성사 대표)=최근 산문집 「생각의 안과 밖」(문이당刊)을 출간함.

▲黃東奎(61년 文理大卒·모교교수)=최근 10번째 시집 「외계인」(문학과 지성사刊)을 펴냄.

▲成炳旭(61년 文理大卒·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장)=최근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창립 40주년 기념전시회 개막식과 축하리셉션을 가짐.

▲金澤秀(61년 法大卒·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최근 변호사 개업. (주소:서초구 서초동 1709-5 우송빌딩 202호. 전화:534-4433)

▲黃仁吉(62년 文理大卒·아남산업사장)=최근 아남그룹 간부직원들의 경영학 교육프로그램으로 개설한 아남MBA과정 개강행사를 가짐.

▲崔承熙(63년 文理大卒·한국문화연구소장)=최근 최홍빈 중국 연변대 민족연구소장을 초청, 「1934~40년대 在滿한인의 항일운동」을 주제로 발표회를 개최함.

▲柳莊熙(63년 商大卒·이화여대 국제대학원장)=최근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개원식을 가짐.

▲沈明洙(63년 法大入·서울남부지원 부장판사)=최근 변호사 개업. (주소:영등포구 문래동 3가 77-59 중원빌딩 2층. 전화:675-3030)

▲李永來(64년 文理大卒·산림청장)=최근 산림유공자 7명에게 산업훈장을 수여함.

▲崔秉烈(64년 法大卒·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本會副會長)=최근 안전문화추진본부(회장 安榮秀)와 공동으로 「어머니 교통안전지도자」 발대식을 가짐.

▲曺海寧(65년 法大卒·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장)=최근 제6회 「일하는 보람상」 시상식을 가짐.

▲柳岸津(65년 師大卒·모교교수)=최근 시집 「누이」(세계사刊)를 출간함.

▲申仲植(66년 文理大卒·시사저널 발행인 겸 편집인)=최근 모스크바대학에서 열린 「KOREA FORUM」에 주제발표 및 토론 참가자로 참석함.

▲金春子(67년 美大卒·화가)=최근 서울갤러리에서 졸업 30년만에 첫 개인전을 가짐.

▲洪羅喜(67년 美大卒·삼성문화재단이사장)=최근 국립중앙박물관에 첨단유물전시장비 22점을 기증함.

▲鄭東俊(67년 行大院卒·한국인사관리자협회장)=최근 인도네시아 코리아社 徐東郁인사전략기획부장을 초청, 「인사관리의 리엔지니어링」이란 제목으로 고급인사관리 강좌를 개최함.

▲權英禮(70년 家政大卒·열린유아교육학회장)=오는 5월 16, 17일 미국·독일·일본의 교육학자를 초청, 「21세기 열린 유아교육」을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할 예정임.

▲李義宰(70년 工大卒·한글의 세계화를 위한 연구회장)=최근 북한산 산행 및 글짓기대회를 개최함.

▲韓豊烈(70년 美大卒·화가)=최근 「풍물, 그 삶의 이야기」라는 주제로 개인전을 가짐.

▲徐載憲(71년 法大卒·서울지법 형사부장판사)=최근 변호사 개업. (주소:서초구 서초동 1715-9 석정빌딩 505호. 전화:536-2900)

▲尹在一(72년 醫大卒·모교교수)=최근 피부과학교실 교수 7명과 함께 내부 장기에 질환이 있을 경우 피부에 나타나는 임상소견을 분석정리한 「전신질환의 피부소견」을 펴냄.

▲劉永俊(73년 農大卒·미래경영기술컨설팅대표)=최근 한국인과 한국기업에 맞는 한국적 경영을 제시한 「품질 환경 경영 혁신」(미래경영기술컨설팅刊)을 출간함.

▲曺洙哲(73년 醫大卒·모교교수)=최근 「청소년에게 보내는 한 정신과 의사의 편지」라는 부제를 단 칼럼집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보라」(열음사刊)를 출간함.

▲梁在煥(76년 法大卒·前의정부지원판사)=최근 변호사 개업. (주소:의정부시 가능동 363-1 법전빌딩 205호. 전화:0351-874-8700)

▲朴明潤(76년 保大院卒·한국청소년자원봉사센터소장)=최근 현대인의 올바른 건강관리를 설명한 「아기에서 노인까지 건강하게 삽시다」(생활지혜사刊)를 출간함.

▲朴鉉淳(77년 法大卒·前고등법원판사)=최근 변호사 개업. (주소:서초구 서초동 1705 정곡빌딩 서관 411호. 전화:593-8775)

▲金 蜂(79년 音大卒·뉴서울필하모니오케스트라단장)=가정의 달 5月을 맞이하여 「스위트 홈 콘서트」를 개최함.

▲文綠仙(79년 音大卒·플루티스트·서울아카데미심포니오케스트라 수석단원)=지난 4월 5일 예술의 전당에서 「플루트와 플루트 군악기1(피콜로)」이라는 주제로 여섯번째 독주회를 가짐.

▲金起峰(81년 醫大卒·모교교수)=최근 국내 의학자로는 처음으로 「심세박동 수술법이 ANP의 분비에 미치는 영향」이란 제목의 논문이 美흉부외과학회에 채택됨.

▲朴國洋(81년 醫大卒·의료법인 길병원 흉부외과과장)=최근 국내 최초로 심장과 폐 동시이식에 성공함.

▲黃宇哲(88년 美大卒·서양화가)=뉴욕 플랫대학원 수학 후 미국에서 작품활동을 하다가 최근 귀국, 첫 개인전을 가짐.

▲柳三男(24기 AMP·해군참모총장)=최근 충무공 탄신 4백52주년을 기념하는 해군군악연주회를 개최함.

〈정리=盧志元기자〉

華燭

*윤영돈 군(95년 師大卒)·강문자 양=5월 16일 오후 1시30분.

*김대철 군(89년 工大卒)·이경륜 양=5월 17일 오후 12시30분.

*최영권 군(91년 經營大卒)·노진희 양=5월 17일 오후 2시.

*신용선 군(93년 經營大卒)·정진선 양=5월 17일 오후 3시30분.

*현재혁 군(92년 農生大卒)·이윤정 양=5월 18일 오전 11시.

*정경윤 군(97년 環大院卒)·박연진 양(94년 環大院卒)=5월 18일 오후 2시.

*홍주표 군(89년 農生大卒)·남현주 양=5월 18일 오후 3시30분.

*홍복영 군(90년 工大卒)·김윤애 양=5월 24일 오후 12시30분.

*곽 현 군(96년 農生大卒)·홍수민 양=5월 24일 오후 2시.

*박준화 군(87년 師大卒)·최현자 양=5월 24일 오후 3시30분.

*김형배 군(94년 工大卒)·조하영 양=5월 25일 오전 11시.

*김형환 군(93년 工大卒)·신정은 양=5월 25일 오후 12시30분.

*오재환 군(89년 師大卒)·김현정 양=5월 31일 오후 12시30분.

*이창수 군(94년 人文大卒)·유은하 양=5월 31일 오후 2시.

*주상원 군(88년 師大卒)·변영화 양=6월 1일 오전 11시.

*강성일 군(95년 農生大卒)·안정진 양=6월 1일 오후 2시.

*손현수 군(95년 大學院卒)·여윤진 양=6월 6일 오후 2시.

*맹경환 군(93년 人文大卒)·연현주 양=6월 7일 오후 12시30분.

*안원수 군(94년 農生大卒)·라은희 양=6월 7일 오후 2시.

*박청택 군(88년 社會大卒)·최미숙 양=6월 8일 오후 12시30분.

*어수웅 군(95년 人文大卒)·박미나 양=6월 8일 오후 2시.

*이창화 군(88년 工大卒)·공유선 양=6월 8일 오후 3시30분.

*임경수 군(88년 工大卒)·조영란 양=6월 12일 정오.

동문을 찾아서

姜慶植 부총리겸 재경원 장관

시장경제 질서확립해 물가안정 유도

"기술·지식 집약형 벤처기업 창업 여건 조성에 힘쓸 터"

지난 3월 5일 부총리겸 재정경제원 장관에 임명된 姜慶植(61년 法大卒)동문을 만나 우리 경제의 위기 진단과 처방 등을 들어보았다.

－부총리에 취임한 후 진단한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문제점은.

『우리 경제는 지난해에 이어 지속되고 있는 경기하강 국면 속에서 노동법 개정에 따른 사회적 불안과 한보사태로 인한 금융 경색현상, 그리고 국제수지적자 확대 등으로 경제가 크게 위축되어 있는 현실입니다』

『최근 수년간 정부가 정치·사회분야의 개혁을 강도 높게 추진하면서 「고비용·저효율」 구조를 뿌리뽑는 경제분야의 개혁은 상대적으로 소홀했습니다. 새 경제팀의 핵심과제는 당장 당면한 과제들을 해결하여 정부의 신뢰를 회복하면서 그 토대위에서 「미래지향의 경제의 틀」을 새로 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금융실명제 보완의 기본 방침은.

『금융거래에 따른 세무관련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선 금융소득에 대해 소득세 최고세율(40%)에 의한 분리과세의 선택을 허용하고 해당 금융소득에 대한 자료를 국세청에 통보하지 않도록 하며 실명전환 금융자산에 대한 세무조사를 면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기관 이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성격상 당연히 실명에 의해 계약이 성립하는 보험거래는 별도로 실명법에서 실명확인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과 실명확인이 생략되는 송금의 범위를 조정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출을 꺼리는 자금 등을 산업자금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출자금 등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부담금을 부과한 후 자금출처에 대한 세무조사를 면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근 금융기관과 기업에 대한 해외차입 규제를 완화했는데 자본자유화 일정 조정과 관련해서 추가로 구상중인 방안은.

『먼저, 주식시장 및 채권시장에 대한 외국인투자 허용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국내 직접금융시장에서 기업이 용이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을 위해 제조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 기업에 대해서는 운용자금 용도의 해외차입도 일부 우선적으로 허용할 예정입니다. 또한 수출기업의 지원을 위해 금년 초에 수출선수금 및 수출착수금의 영수한도를 이미 확대한 바 있으며 금년말까지 내수용 수입을 포함한 중소기업의 모든 연지급 수입에 대해 기간을 180일까지 연장하여 자유화할 계획입니다』

－정부 예산 절약에 어떻게 동참을 유도하실 계획인지요.

『경제성장의 둔화에 따른 기업경영의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올해의 세수목표를 2조원 규모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지난 2월 정부를 포함한 공공부문에서 1조8백85억원을 절감하기로 한데 이어 추가로 1조1천7백20억원의 정부예산 집행을 유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내년도 예산규모 증가도 최대한 억제할 예정으로 98년 경상성장률이 10% 수준으로 전망되는데 예산규모 증가율은 이보다 낮은 9% 수준에서 편성할 계획이며 각종 행사의 간소화, 불요불급한 출장은 자제하고 청사신축, 국내외 행사 등 행정경비는 최대한 절감할 생각입니다』

－부총리께서는 취임하시면서 「새싹 경제론」을 주창한 바 있습니다. 새싹을 키울 특별한 산업구조 조정방안은.

『기존의 중소기업들이 보다 경쟁력 있는 기술집약적·지식집약적 분야로 구조조정을 해나가도록 함과 더불어 새로운 벤처기업들이 끊임없이 생성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지난 3월 31일 소위 「벤처기업」이라고 불리우는 기술집약형·지식집약형 중소기업이 활발하게 생성되고 활동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발표, 실행에 옮기고 있습니다』

－물가 안정을 위해 우선 해야 할 일은.

『그동안 서민가계에 과중한 부담이 되어 온 사교육비, 주거비, 식료품비 등의 경감방안을 중점 추진하고 있으며 대내외적인 경쟁촉진을 통해 우리 상품의 경쟁력이 제고되는 가운데 물가안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가속화되고 있는 대외개방의 효과가 물가안정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수입상품의 유통구조를 개선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물가정책의 기본은 시장경제 기능이 최대한 발휘되도록 함으로써 물가가 구조적으로 안정되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23만 동문들에게 한 말씀.

『우리 경제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며 모든 경제주체들이 이번 어려움의 원인이 우리 자신에게 있다는 생각으로 세계조류의 변화에 맞게 스스로 달라지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기업을 운영하고 계신 동문들은 세계 경제질서의 전환에 발맞추어 경영혁신 노력을 가속화하고 새로운 화합의 노사관계 구축에 정진하는 등 경쟁력 있는 기업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燮〉

우리 장맛 지켜온 식품생산의 본가

"보고는 몰라요 들어서도 몰라요 맛을 보고 맛을 아는…"

영화·음반·출판·정보통신 등 사업다각화 추진

동문기업탐방

④ 샘표식품

朴進善사장

작년에 창립 50주년을 맞은 샘표식품(주)은 오직 장류업에만 전념해 현재 50%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일본을 비롯한 외국의 어떠한 장류에도 뒤지지 않는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샘표식품은 충무로 4가의 일본인이 경영하던 삼시장유양조장을 朴奎會 초대사장이 인수하면서 출발했다.

당시에는 간장을 사먹는 사람이 적어 군납을 시작으로 성장했으며, 그 후 민수시장에 뛰어들어 성공가도를 달렸다. 샘표식품이 반세기동안 꾸준히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직원들간의 인화를 통한 경영을 중시해왔기 때문이다. 이 곳에는 10년 이상 장기근속한 사원이 많고 노사협력도 매우 잘 되고 있다.

「간장하면 샘표」 널리 인식

샘표식품은 초창기부터 광고에 힘써 왔다. 『보고는 몰라요, 들어서도 몰라요…』라는 CM송은 시대를 초월해 지금도 라디오에서 방송되고 있으며, 일찍부터 주부들을 대상으로 공장견학을 실시해 직접 브리핑을 하는 등 적극적인 마케팅을 통해 「간장하면 샘표간장」이 떠오를 정도로 소비자들에게 깊은 인식을 심는데 성공했다.

창립자인 朴사장의 3남인 朴承宰 현 부회장이 58년 경영에 뛰어든 후, 76년 장남인 朴承復 현 회장이 제2대 사장에 취임했고 이어 올해 4월 장손인 朴進善 전무가 제3대 사장에 취임하면서 샘표식품은 3세대 경영체제에 돌입했다.

샘표식품에는 55년 모교 공대를 졸업한 朴承宰부회장을 비롯해 朴承禹(61년 工大卒)이사, 金昌熙(52년 工大卒)감사, 李錫泳(55년 法大卒)감사, 鄭鍾奐(91년 自然大卒)기획실 계장 등 다수의 서울대인이 활약하고 있다.

특히 신임 朴進善사장은 73년 모교 공대를 졸업하고 美스탠포드대에서 석사, 오하이오주립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부인 高季媛아주대교수도 73년 문리대를 졸업한 서울대인이다. 이들의 장남인 容學군이 올해 모교 공대 컴퓨터공학과에 입학함으로써 또 하나의 서울대 일가를 이루게 됐다.

샘표식품은 신임 朴사장의 취임을 계기로 종합식품회사로의 도약을 꾀하고 있다. 이에 따라 90년대 들어서 소비자들의 다양하고 고급화된 기호에 맞추기 위해 염도가 적은 저염간장과 감염간장을 생산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신제품 「국시장국」을 개발해 소비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또한 본사가 직접 생산하는 장류제품 뿐만 아니라 70년대에 설립한 자회사인 조치원식품(주)과 양포식품(주)에서 생산하는 과일 통조림 등 농산물 가공식품, 생선 통조림 등의 수산물 가공식품은 물론 협력회사를 통해 주문자 생산 방식으로 식용유, 국수류, 다류 등 여러 가지 식품을 판매하고 있다.

간장의 경우, 지난해 경실련에 의해 제기된 MCPD파동으로 혼합간장에서 양조간장으로의 변화 추세가 빨라졌는데 양조간장은 대규모의 생산시설이 필요하다. 대규모의 첨단시설을 자랑하는 샘표식품으로서는 이를 기반으로 간장 수요의 고급화를 선도하는 한편 현재시설을 두배로 확충해 양조간장만으로도 현 시장 점유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이천공장은 대지 3만여평에 건축면적 7천평으로 최첨단의 기계설비를 자랑한다.

완벽한 폐수처리 시설 자랑

현재 간장을 연간 4만㎘ 생산할 수 있는 창동공장에서는 간장, 된장, 고추장을 생산하고 있으며, 연간 3만㎘를 생산할 수 있는 이천공장에서는 양조간장 원액을 생산하고 있다. 특히 이천공장의 규모는 대지 3만여평에 건축면적 7천평으로 최첨단의 기계설비를 자랑하고 있어 일본의 유명한 장류회사인 기코망간장 회사의 경영자들이 견학을 오기도 했다.

샘표식품은 일찍부터 환경문제에도 남다른 관심을 가져왔다. 완벽한 폐수처리 시설과 소각시설은 지하수의 오염원이 되고 있는 매립물을 완전 소각할 수 있으며, 공기의 오염원인 불완전 연소물을 해소하는 자동연속 완전분해 장치도 가동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시설물 가동시 발생하는 열을 재이용하는 등 선진적인 환경설비를 자랑하고 있다.

한편 샘표식품도 다른 많은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정보통신 사업 등 사업다각화를 추진하고 있다. 朴進善사장으로서는 전자공학을 전공했다는 잇점을 갖고 있어 그 출발에 힘을 더하고 있다.

朴사장의 장기목표는 영화·음반·출판 등을 비롯한 정보통신 사업에서 기반을 닦은 후, 21세기의 가장 큰 사업영역인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에 뛰어드는 것이다. 또한 반세기의 역사를 기념한다는 의미를 더해 퇴계로에 있는 샘표식품의 발상지를 활용, LANDMARK가 될만한 종합엔터테인먼트 센터도 건립할 계획이다.

〈志〉

모임 採訪

한국국제협력단(KOICA)

"개도국 경제·농업개발 집중 지원할 터"

한국은 이제 국제사회로부터 받는 입장에서 나누어 주는 입장으로 발전했다. 지구촌에서 우리에 걸맞는 역할과 책임을 수행하는데 앞장서온 한국국제협력단(KOICA).

駐캐나다 대사를 거쳐 현재 KOICA 총재를 맡고 있는 申基鎭(60년 文理大 卒)동문을 만나보았다.

－그동안의 활동은.

『국제협력 전담기관인 KOICA는 91년 4월 발족했습니다. 그동안 우리보다 어려운 90여개 후발 개도국의 경제·사회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개도국 연수생 초청 연수, 봉사단·의료단·국제협력요원 등의 개도국 파견, 프로젝트 사업(병원, 학교 건립 등), 개발조사사업(도로개량, 발전소 건설 등), 민간원조기관(NGO) 지원 등을 해왔습니다』

－국제협력사업의 중요성과 성과는.

『국제협력사업은 우리나라 세계화 추진의 교두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함께 잘 사는 인류사회 건설이 그 목표로서 협력사업을 통한 인적교류로 우리 국민의 세계진출과 세계인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국제사회에서 공동번영의 동반자적 이미지를 가진 국가로 부각시키고 활발한 경제 교류 및 자국 상품 수출 증진 효과 및 자국내 민간기업의 개도국 진출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인도적 차원에서 르완다, 이디오피아 등 극빈·전란국에 대한 인류애를 실현하고 자연재해를 입은 국가에 대한 긴급지원 등을 통해 국제사회에서의 한국 이미지 제고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업 현황은.

申基鎭총재

『예산 규모 측면에서 보면 91년 1백73억원에서 97년 6백7억원으로 크게 성장했습니다. 최근 많은 나라를 대상으로 소액 지원하던 방식에서 중점 대상국을 선정, 집중 지원하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해 원조 효과가 증대됐으며 중국 직업훈련원 지원사업 등 프로젝트형 사업을 아·태지역을 중심으로 대폭 확대하고 지속성있는 협력사업을 추진해 원조 효과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한국청년해외봉사단이 유명한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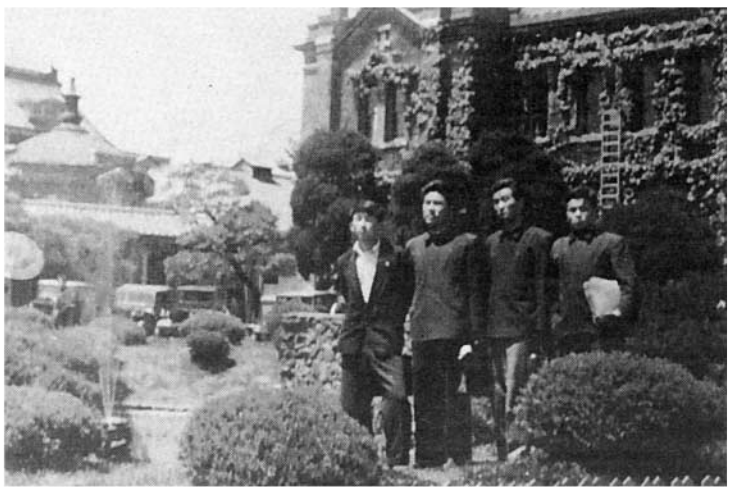
『90년 4개국에 1기 단원 44명을 파견한 이래 96년까지 23개국에 4백14명(여자 2백5명)을 파견, 현재 23개국에서 1백71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향후 매년 2, 3개국을 늘려 2천년대에는 30개국에 5백여명의 단원을 파견할 계획이며, 단순 기능위주보다 개발경험의 전수가 가능한 인력선발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대내적으로는 국제협력 전문기관으로서의 자질함양에 힘을 쏟을 생각이며,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의 우리 위치에 상응하는 규모로 사업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한 개도국의 경제·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차원의 사업지원을 확대하고 개발경험 공유를 통한 경제·기술협력 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우리나라가 비교우위에 있는 경제개발·농업개발 등을 중점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志〉

추억의 窓

연희치과의원 원장 李大源(60년 齒大卒)



60년 생리학실습 후 의대부속병원 앞에서(우로부터 첫번째 필자)

막걸리 마시고 다방 몰려 다니던 설익은 낭만 소중히 간직하고파

지금은 한국은행이 인수하여 현대식 건물로 탈바꿈한 중구 소공동 11번지.

치과대학 및 부속병원 옛 교사는 조선시대 왕손들이 해산할 때 사용하던 儲慶宮(趾)터였다고 한다. 운동장이라야 승용차 10대가 겨우 들어갈 정도의 공간이었다. 우리는 그 좁은 운동장에서 농구도 하고 배구도 하며 젊음을 발산했다. 단과대학 대항 체육대회가 열릴 때면 지금의 디자인포장개발원 자리에 있던 수의과대학까지 가서 축구연습을 해야 했다.

강의실이나 실습 기자재 수준도 지금에 비하면 열악하기 짝이 없었다. 겨울이면 강의실에 조개탄 난로를 피워 추위를 피했고 발로 돌리는 foot engine으로 치아 모형을 깎았다. 해부학, 조직학, 구강병리 등 기초 실습은 치과대학 실습실에서 했지만 생리학이나 약리학, 생화학 등의 실습은 연건동 의과대학까지 가서 받았다. 가끔 전차를 타기도 했지만 차비가 없어 주로 걸어서 의과대학까지 수강하러 가곤 했다.

戰後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교수님들은 의국(의사연구실)에서 밤을 새워가며 연구를 하셨다. 아예 취사도구를 갖다 놓고 의국에서 자취를 하시는 분도 계셨다. 더러는 아침마다 부인들이 도시락을 배달하던 모습도 그리운 추억이다.

일제시대 치과대학이 처음 문을 열었을 때는 25대 1의 경쟁률을 보일 만큼 인기학과였다지만 중·고등학교 시절 6·25를 겪은 우리는 가끔 공부보다는 몰려다니며 노는 데 더 신경을 쓰지 않았나 하는 반성도 해본다. 길을 건너면 바로 명동과 남대문시장이었다. 우리는 명동과 남대문시장 골목을 누비며 막걸리 잔을 기울이고, 명동 소공동 일대의 다방에 몰려 다니며 설익은 낭만을 탐닉하곤 했다.

우리들의 가장 큰 희망은 졸업 후, 치과 군의관이 되는 것이었다. 치의학 수준이나 치과 기자재 면에서 군이 대학보다 훨씬 앞서 있었기 때문이다. 주한 美8군병원 치과부는 새로운 학문과 기자재를 접하는 좋은 곳이었다. 무엇보다도 선후배와 어울리고 교수님과 가깝게 지내던 일들 모두가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는다.

누가 그랬던가. 과거는 없어지지 않고 우리의 기억에 축적된다고. 기억의 창을 통해 회상해 볼 때, 지금은 물질과 기술이 풍요해도 어려움속에서 경험으로 얻은 진리를 소중히 간직하고 싶다.

모교소식

「핵폐기물 저장소」 설치

국내 대학 최초…99년 완공

모교가 국내 대학으로는 처음으로 화학실험 과정에서 추출되는 저준위 방사선 동위원소폐기물을 자체 보관하기 위한 저장소를 교내에 세운다.

환경안전연구소(소장 李華榮)는 지난 4월 11일 교수와 학생들이 실험실에서 나오는 방사능에 오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 관악캠퍼스 종합체육관 맞은 편에 연면적 5백14평, 건평 1백90평의 3층짜리 방사성 폐기물 저장소를 한국전력 원자력발전소 공사팀에 의뢰, 신축중이라고 밝혔다.

총 40억원의 예산을 들여 99년까지 완공 예정인 이 저장소는 연구실 및 실험실에서 나오는 각종 유해 방사선 동위원소를 특수 차폐 시설에 보관하다 반감기가 지나면 대전 원자력연구소로 보내 처리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석좌교수제」 도입

국제학술상 등 수상자 대상

모교는 지난 4월 3일 탁월한 연구업적과 사회활동으로 국내외에서 명성을 쌓은 인사를 교수로 선임, 교육·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석좌교수제를 시행키로 했다.

석좌교수 자격은 노벨상, 주요국제학술상, 국제기구에서 주는 상을 받은 사람과 특정분야에서 20년이상 종사하고 학문적 업적이 탁월한 사람 등이다.

석좌교수는 각 대학(원)장 또는 부속기관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용하게 된다.

신임 교수협의회장에

李種昕치과대학 교수

교수협의회는 지난 3월 31일 정기총회에서 서울대법위원회, 처우개선위원회, 교내제도개선위원회 등의 활동 보고를 가진 후 신임 회장에 李種昕(61년 齒大卒)치과대학 교수(사진)를 선출했다.

한편 부회장에 安三煥(독문학), 李正馥(정치학), 李仁圭(생물학), 李基春(소비자학), 崔鍾泰(경영학), 李正仁(자원공학), 鄭夏禹(농공학), 文昌奎(약학), 崔 滉(의학)교수를 선임했다.

제적생 복교 허용

모교는 가정형편이나 질병 등으로 인해 미등록 제적된 사람들에 대해 학부·대학원 구분없이 본인의 청원이 있을 경우 모두 복교할 수 있도록 학칙을 개정, 2학기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60년대 이후 모교에 입학했다가 제적된 60대 노인을 비롯, 1만여명이 못다한 학업을 마칠 수 있게 됐다.

박물관

수요교양강좌 개최

박물관(관장 崔夢龍)은 6월 18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학생 및 교직원, 일반인을 대상으로 「인류학과 함께 하는 세계여행」이라는 주제로 교양강좌를 개최한다.

□강의일정·강사 △5월 21일:「아일랜드 사람들이 꿈꾸는 세상」 황익주 강원대 교수 △5월 28일:「베트남에서는 누구를 만날까?」 조해정 연세대 교수 △6월 4일:「끝없는 혁명:중국의 오늘」 김광억 모교 인류학과 교수 △6월 11일:「시베리아에서 만난 무당」 김성례 서강대 교수 △6월 18일:「일본사람 만들기」 정병호 한국외국어대 교수

음악대학

화요음악회 열어

음악대학(학장 李成均)은 지난 94년부터 정기적으로 주관해 왔던 「수요음악회」를 이번 학기에는 「화요음악회」로 변경, 매주 화요일 오후 4시 문화관 소강당에서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공연한다.

□공연일정 △4월 15일:김광민 재즈피아노 연주회 △4월 29일:채리티 앙상블 연주회 △5월 27일:서울레이디스싱어즈 연주회 △6월 10일:타악기 앙상블 「4Plus」 연주회

농생대 이전 부지 확정

관악캠퍼스 체육관 뒤

모교 캠퍼스계획위원회(위원장 崔松和)는 지난 1월 6일 관악캠퍼스 안에 농업생명과학대학 이전부지를 확정하고 이전작업을 본격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악캠퍼스 체육관 뒤쪽에 연건평 1만8천여평 규모로 농생대 건물을 짓기로 하고 우선 국유재산 특별회계에서 이전 자금 9백80억원을 지원받을 계획이며 올해안으로 건물 설계를 끝내고 내년부터 건물건축에 들어가 2천년에 완공할 예정이다.

그동안 환경파괴 우려 등의 이유로 낙성대 근처, 관악산 기슭, 공대 신축건물 옆, 서울대출판부 등으로 자리를 옮기는 우여곡절 끝에 10년여만에 농생대 이전사업이 본격화하게 됐다.

간호대학

나이팅게일 선서

간호대학(학장 李笑雨)은 지난 4월 28일 간호대학 선후배 동문과 학부모를 초청, 3학년 학생들의 제37회 나이팅게일 선서식을 거행했다.

사범대학

특수교육과 설치

사범대학(학장 黃載璣)은 지난 4월 18일 학년 정원 15명의 특수교육과를 99학년도부터 설립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교육부에 승인을 요청했다. 〈燮〉

本報는 5월호(제230호)부터 「모교소식」란에 재학생들의 재치와 유머가 담긴 이야기를 소개함으로써 선후배간의 공감대를 넓혀나가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大學新聞 「대학쌀롱」에 실린 내용중 일부를 발췌하거나 재학생이 직접 작성한 글을 「선배님 아세요?」라는 칼럼으로 게재합니다.

선배님 아세요?

－大學新聞 「대학쌀롱」 중에서－

서울대 사람들, 이런 건 자랑 마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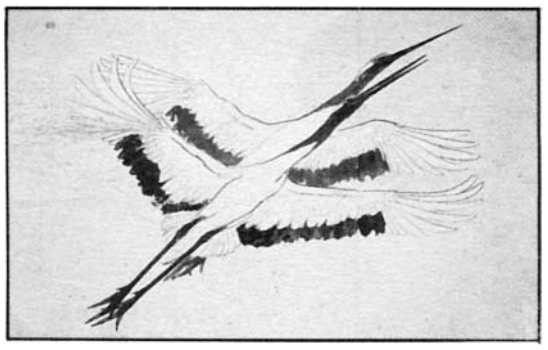
◇서울대인이 자랑했다가는 팔불출골되는 몇가지가 있으니 유의하시길.

1. 『내 학점이 왜 이래. 이래봬도 내가 고등학교때는…』－예전엔 공부 잘 했었다는 자랑.

2. 『너네 학교는 우리 학교 기숙사보다 조금 작구나. 아담해서 좋다야』－쓸데 없이 학교 크다는 자랑.

3. 『아무개 장관 우리 과 출신이야, 그리고 아무개 수석도 우리 교수님이셨어』－요즘같은 시국에 선배들이 국가 고위층에 있다는 자랑.

서울大學校 同窓會報



동창회 지표 •참 여 •협 력 •영 광

제230호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News 1997년 5월 15일

4월호를 읽고

동문 상호간의 유대 강화하는 역할 기대

세계화·정보화 시대의 급변하는 오늘의 사회에서 바쁜 나날을 뛰다 보면 매월 한 번씩 책상위에 동창회보가 배달되는데 이는 참으로 반가운 선물이 되고 있다.

동창회보는 지난날 꿈과 희망이 많았던 학창시절의 추억이 담겨 있을 뿐만 아니라 모교의 발전상 그리고 동창회원들의 근황을 담은 소식을 전해주는 매체로서 회원 상호간의 정분과 유대를 더욱 돈독히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우리 동창회의 지표는 참여, 협력, 영광이다. 모든 회원들은 동창회보를 통해 지표의 정신을 되새기고 우의를 다지면서 국가사회의 엘리트 역할을 착실히 수행해 갔으면 한다. **愼鏞來(56년 師大卒) 경남교육청 부교육감**

우수 논문·업적 실어 학문적 성장 보여주길

21세기를 바라보며 세계화의 과제와 우리의 대응을 생각해 보자.

첫째, 학위별 졸업생수를 보면 양적으로 세계의 어느 대학에도 뒤지지 않는다. 이제 양적 팽창 보다 질적 향상에 박차를 가해 학문적 성과를 높여야 한다.

둘째, 우수한 박사학위 논문이나 교수 연구업적의 개요를 회보에 실어 모교의 학문적 성장을 소개하면 좋겠다.

셋째, 일반 일간지에 겹쳐 소개되는 동문 프로필 뿐만 아니라 국내외의 그늘진 곳에서 일하는 숨은 일꾼들을 발굴해 그들의 이야기도 함께 소개하기를 바란다.

넷째, 자유경쟁을 통한 세계화 시기에서 지역화에 앞장서야 한다. **崔鴻圭(68년 敎大院卒) 사랑의 녹색운동본부 회장**

뜨락

장애아의 간절한 부탁

朴嘉順(64년 家政大卒)가정대동창회 17회 간사

며칠 전, 대학동창여성초청 시정설명회에 참석했었다. 오전 시정 설명회가 끝나고 오후에는 시립아동병원을 방문하는 시간이 있었으나 대부분 행사의 부록쯤으로 생각해 몇 사람만이 가볍게 참가했다.

나 역시 참가자가 너무 적어 인솔자에게 미안해 갔었다. 그런데 그냥 지나칠 뻔한 그곳에서 간절한 말을 간직하고 돌아왔다.

숨만 쉬는 아이들 즐비해

미리 받아 본 홍보지에는 「시설 견학 및 지체 아동 위문」이라고 씌어 있었다. 아! 지금 나에게서는 탄식이 먼저 나올 수 밖에 없다. 홍보지에 위와 같이 쓴 것은 그 처참한 상황을 글로 표현할 수 없어 그렇게 한 것 같다.

나는 이른 봄 정원에서 전지 작업때 잘려나온 꽃나무 가지를 보면 그 가지에도 이제 막 피어나려는 꽃과 잎의 싹이 톡톡 튀어 나와 있는 것을 보고, 주워다 꽃병에 꽂아 놓곤 했다.

내가 그 날 본 아이들의 모습이 그 잘려져 굴러 다니는 나무가지들 위에 겹쳐져 내 머리에서 떠날 줄을 몰랐다.

중환자실에 식물 인간처럼, 아니 거의가 식물 인간이다…

뇌수종에 걸린 열두 살 아이는 여느 아이에 반해 머리는 서너배가 크고, 능력이라고는 숨을 쉴 수 있다는 것 뿐이었다. 수족이 흐물흐물한 아이, 한두 명의 아이가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었다. 수 십 명의 아이들이 우리가 정장을 하고 화장을 곱게 하고서 그들을 보고 있음이 민망하지 않게 의식없이 누워 있었다.

중환자실이 아닌 방에도 기다란 스폰지 하나에 열 명이 넘는 어린이가 뉘어진 채로 아니 놓아둔 대로 즐비하게 누워있었다. 우리 아이들이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았던 것을 생각하니 한없이 가여웠다.

지난 세계 올림픽에 수족이 제대로 없어 데굴 데굴 달리는 장애아를 보고 우리는 불쌍하다고 했다. 그러나 내가 본 숨만 쉬고 있는 아이들이 그 아이를 봤다면 무척 부러워했을 것이다.

사지가 제대로인 아이들 중에는 자주 발작을 일으키는 아이도 있고, 태어날 때부터 동공이 없는 아이, 유전적으로 염색체 수가 비정상이어서 저능인 아이, 그들에게 한결 같은 것은 신진 대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해 피골이 상접해 있다는 것, 대소변을 가릴 수 없어 기저귀를 착용하고, 사고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가임 여성의 참 교육 절실

그런데 이 불쌍한 아이들이 침묵으로 나에게 간절한 부탁을 했다. 자신의 부모와 같은 사람이 없도록 해달라고. 태중에 흡연·음주·약물 복용 등의 금지, 형편상 아이를 버릴 때는 곧 발견할 수 있는 곳에 놓아 달라는 것 등의 전문가 교육을 모든 사람에게 해달라는 부탁이었다.

가임 여성 집단인 여중고생이나 공장 여성을 대상으로 홍보, 봉사(목욕, 식사 수발 등)를 필수 교과 과정으로 채택했으면 한다. 남성단체도 필수 교과 과정으로 정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한다.

침묵속 내 아가들아, 너희들의 간절한 부탁을 다 전했는지.

보건 행정이 뒷걸음 친다

黃錦美(76년 看護大卒)메디메디아 코리아 사장

대학을 마치고 미국 발모랄 병원에서 임상간호에 관한 연수를 받던 시절이었다. 그 곳 의료진들에게 세계 각국의 방대한 의약 정보들이 다양한 형태로 전달되는 것을 보고 놀라움과 부러움을 느꼈었다.

이것이 일반인들에게는 다소 생소한 분야인 메디컬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에 20여년이라는 결코 짧지 않은 세월과 나의 젊음을 바치게 된 동기이다.

질병 예방에 투자 늘려야

메디컬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을 좀 더 쉽게 설명하자면, 최신의 의·약·건강 정보를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살아있는 정보로 만들어 전달하는 일을 말한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의약품 광고비는 총 2천6백억원으로 전체 19개 업종 가운데 광고비 점유율에서 8위의 높은 기록을 보였다. 반면 선진국의 보건의료 지표인 OECD회원국간의 의료지표 조사에서는 26개국 회원국 가운데 우리나라가 교통사고 사망률은 물론 고혈압성 질환, 간암, 결핵으로 인한 사망률에서 각각 1위를 차지하는 보건 후진국임을 드러냈다.

우리나라 보건정책이 제약회사나 병원만을 살찌우기 위해 질병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자사제품만이 우수하다는 식의 의약광고나 고가의 의료장비를 갖춘 것이 최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는 오류를 탈피해야 한다는 뜻이다. 여기에 쓰이고 있는 많은 예산의 일부분을 국민건강을 위한 예방 교육에 투자한다면 위와 같은 남부끄러운 결과를 초래하지는 않았을테니까 하는 말이다.

정확한 의약정보 제공할 때

2년전부터 나는 새로운 일을 준비하고 있다. 그동안 축적된 의료정보전달에 관련된 노하우를 일반소비자를 대상으로 확대시키는 일이 바로 그것이다.

즉 일반소비자에게 쉽게 의약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일이다. 우선 소비자들이 손쉽게 찾아볼 수 있는 사전식의 의약정보 인덱스를 개발하는 것부터 착수했고 그 결과는 이번 7월에 발간될 「우리 가족 건강가이드 닥터메디」라는 책자로 선보이게 될 것이다. 내게는 어찌보면 위험부담마저 느끼는 새로운 사업영역일 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내게는 이번에 새로운 일, 그리고 꿈꾸던 일을 시작한다는 것이 에너지로 작용한다고 믿는다.

한 회사를 책임지고 있는 동시에 한 가정의 어머니 역할을 동시에 책임지고 있는 내게 두가지 일이 모두 소중하듯 의약전문가들과 일반 소비자들 모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같은 무게로 다가온다.

서울대 가족

申鉉喆 동문 가족

대구·경북지역에서 명성 자자한 醫家三代

함춘회관 건립기금 출연하는 등 동창회 발전에도 기여

『「처가와 ○○는 멀수록 좋다」는 말이 있지만 요즘은 거꾸로인 것 같습니다. 처가 근처에 살다보니 이렇게 서울대 가족으로 소개되는 영광도 누리게 되는 군요』

申鉉喆동문의 사위인 崔敬鎭동문은 『3대가 서울대 동문인 가족은 많이 있겠지만 전공을 같이 하는 가족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다』면서 의사 가족으로서의 자부심을 살짝 내비쳤다.

申鉉喆동문은 52년 모교 의대를 졸업하고 60년부터 대구에서 「신피부비뇨기과의원」을 운영해왔다. 30여년간 한자리에서 환자진료에 전념하는 한편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아끼지 않아서인지 대구, 경북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명성이 자자하다.

뒷줄 좌로부터 崔宰赫, 申明湜, 崔埈赫. 앞줄 좌로부터 申東潤, 申基湜, 李淳英, 申鉉喆, 權南英, 申東埈, 崔敬鎭, 申慧媛.

30년간 醫業을 천직으로

특히 이곳에 거주하고 있는 서울대 동문들의 화합과 친목을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최근 의대동창회관인 「함춘회관」 건립기금으로 1천만원을 출연하는 등 동창회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申동문은 부인 權南英여사와의 사이에 2남1녀를 두었다. 장녀인 慧媛씨는 78년 이화여대 의대를 졸업하고 줄곧 신피부비뇨기과의원에서 아버지와 함께 의사의 길을 걷고 있다.

사위인 崔敬鎭동문은 74년 모교 의대를 졸업하고 82년 모교 병원에서 비뇨기과 전문의 과정을 마친 후, 대구로 내려와서 장인을 도와 함께 진료에 임했다가 최근 모교 병원 피부과 전문의로 있던 처남 申基湜동문에게 장인 보필의 중책(?)을 넘기고 현재 「최경진 비뇨기과의원」을 따로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崔敬鎭, 申慧媛부부의 장남인 埈赫군이 올해 모교 의예과에 입학함으로써 이 가족은 醫業을 3대에 이어 계승하는 한편 가족 모두가 의학을 전공하는 기록을 세우게 됐다.

이들 부부는 아들이 의대에 들어가겠다고 했을 때 처음에는 반대를 했다고 한다. 의사의 길이 멀고도 험한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다 특히, 요즘같이 모든 여건이 열악해지는 상황에서는 전공을 바꾸었으면 하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외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외삼촌이 모두 의사인 가정에서 성장해서인지 굳이 의대를 가겠다고 고집을 피웠고 이들 부부는 이제 대견한 마음으로 아들의 성장을 지켜보고 있다.

崔敬鎭동문은 차남인 宰赫군(고 3)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으니 『내년에도 또 한명의 서울대동문이 탄생하지 않을까 은근히 기대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장남인 申基湜동문은 85년 모교 의대를 졸업하고 현재 신피부비뇨기과의원의 부원장을 맡아보고 있으며, 큰며느리 李淳英씨는 85년 이화여대 영문과를 졸업하고 현재 영남대학교 영어강사로 활동중이다.

또한 차남인 申明湜씨는 미국 뉴욕 맨하탄 음대 대학원을 졸업하고 현재 대구예술대학교 피아노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申基湜, 李淳英부부는 슬하에 초등학교 5학년, 1학년인 아들 東潤과 東埈군을 두었는데 이들은 의사가족의 후손답게 할아버지, 아버지의 뒤를 이어 관악출신의 의사가 되겠다는 꿈을 키우고 있다.

李相玉 前외무장관이 사돈

한편 57년 모교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외무부장관을 역임한 李相玉동문과 58년 모교 공대 섬유공학과를 졸업한 申重畢동문이 申基湜동문의 장인, 장모여서 또 하나의 서울대 일가를 이루고 있다.

申鉉喆동문은 자손들에게 항상 『행복의 요소인 健康과 長壽에 도움이 되는 의학은 학문중에서도 으뜸으로 중요한 것이며, 醫業을 천직으로 알고 긍지를 가지고 항상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모든 일에 감사하고 상식에 어긋나지 않도록 행동할 것을 가르쳤다.

이러한 가르침을 소중히 여겨온 申鉉喆동문 가족은 서울대 가족으로서 한점 부끄러움이 없이 생활해 모교의 명예를 빛낼 수 있도록 늘 조심하고 신중하게 생활해 왔다.

가족들은 특히 『오늘날 이렇게 화목한 가정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 權南英여사의 정성과 사랑이 가장 큰 밑거름이 됐다』면서 이번 기회를 통해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고 했다.〈志〉

문화단신

新刊

■朝鮮前期 佛腹藏織物의 理解

－金英淑 著

동양복식연구원 원장으로 재직중인 金英淑(49년 師大卒) 동문이 경북 영풍 흑석사 아미타여래불에서 출현한 직물류를 통해 조선전기 불복장물(불상을 조성, 봉안할 때 불상의 몸속에 넣는 물건)의 형태와 색깔, 보존 방법 등을 담은 책을 펴냈다.

실물 사진자료들이 실린 이 책은 우리 전통직물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아 복식사나 직물사 연구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미술문화刊·값20,000원〉

■소나무

－李大源 著

의학도로서 남다른 삶을 살아온 李大源(60년 齒大卒·연희치과의원장)동문의 일대기가 담긴 회갑기념 문집이 발간됐다.

李동문의 소박하고 진솔한 이야기와 더불어 60여명의 선·후배, 동료들의 사랑 어린 메시지가 담겨있다. 〈비매품〉

■사랑으로 만든 집

－金二求 著

소설가 金二求(82년 人文大卒)동문이 80년부터 집필해온 단편소설들을 묶어 첫 창작집을 내놓았다. 10여편이 실린 이번 창작집을 통해 오랜 수련을 거친 金동문의 탄탄한 글솜씨를 엿볼 수 있다. 〈솔출판사刊·값6,500원〉

■교육관광 길눈이

－金啓燮 著

동아대 관광경영학과 金啓燮(84년 環大院卒)교수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교과과정에 맞춰 살아있는 교육을 직접 전해주는 국내 관광지 현장답사를 책으로 펴냈다.

위치, 교통, 숙박시설 등 답사를 떠나기 전 사전정보는 물론 답사일지를 부록으로 마련했다. 〈교육관광刊·값7,000원〉

公演

■아울로스 목관 5중주단 －5월 27일 예술의 전당

李昌洙(71년 音大卒··클라리넷), 金亨燮(76년 音大卒·오보에), 金泳律(80년 音大卒·호른) 동문과 김충배(바순), 이혜경(플루트)씨로 구성된 아울로스 목관 5중주단이 제7회 정기연주회를 예술의 전당 리사이틀홀에서 갖는다.

이날 공연에서는 드뷔시, 바버, 닐센, 리게티의 작품을 연주한다. 〈정리= 安興燮기자〉

화제의 동문

69세에 학사모 다시 쓴 金崇經동문

"목숨이 허락하는 한 공부 계속하겠다"

방송대 졸업식에서 가족들의 축하를 받고 있는 金동문.

『앞으로 영어, 불어, 독일어, 러시아어를 3년씩 공부할 계획입니다』

박사학위까지 갖고 고희의 나이를 앞두었지만 매일 새벽 1시반에 일어나 10시간 이상을 학업에 매달리며 『제대로 공부하지 못한 날은 죄책감을 느낀다』는 金崇經(54년 醫大卒·천안의원장)동문.

89년과 92년 고구려, 발해 유적지 답사중 의사소통과 간체자해독에 불편을 느껴 중국어 공부를 시작했고, 95년에 방송통신대 중문과에 편입해 평균 졸업률 4% 이내에 들기 위해 밤을 새웠다.

무엇이 인생을 정리할 나이의 金동문에게 적어도 12년의 계획을 갖게 했을까 하는 의문은 그의 살아온 이야기를 듣고 풀렸다.

金동문은 옛 발해의 서쪽 끝 개원에서 자라 해주동중에서 鄭元植(前국무총리), 趙完圭(前모교총장), 張奭鎭(모교명예교수)동문 등과 같은 반에서 공부했다.

『대학생활은 교실을 숙소로 하고, 때로는 며칠을 물만 마셔 온몸이 퉁퉁 부은 적도 있었습니다. 정말이지 강의는 뒷전이고 밥 생각만 났습니다』

조교 발령장에 但無給이라는 단서가 붙었으며, 선후배들이 당직부탁을 하며 건네는 식권과 푼돈으로 하루 하루를 지낼 정도로 경제적 안정과는 거리가 멀었다. 60년 부정선거를 비판한 일로 안성도립병원에서 타의로 사표를 내고 아무 연고도 없는 천안으로 가게 됐다. 金동문은 그곳에서 함석헌선생을 만나 장준하, 리영희씨와 함께 「민주수호국민협의회」 운영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현대사의 격동에 휘말린다.

『73년 12월 어느날, 장준하 선생이 헌법개정청원운동 발기인이 되기를 원하면 서명하라 하시며 백지 한 장을 꺼내셨습니다. 얼마전 SBS의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백만인 개헌 서명운동」 발기인 30인의 한사람으로 서명한 필적이 TV화면에 나타났을 때 20여년전의 일이 떠올라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개헌서명을 한 이후, 항상 감시를 받았고 빨리 퇴원해 달라고 사정하던 입원실은 텅텅비어 쌀 걱정, 연탄 걱정을 하지 않은 날이 없었으며 3공화국이 물러나고서야 의사로서의 생활, 공부에 몰두할 수 있었다.

독일 뮌헨에 있는 닥종이 인형작가인 동생 김영희씨는 「아이를 잘 만드는 여자」에서 『그는 이제 투사라기보다, 가난하고 성공 못한 의사에 불과하다』고 金동문을 평가했다. 그러나 후학들에게 『일신상의 영달과 목전의 이익을 위해 義를 저버리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인생을 살았고 목숨이 허락하는 한 공부를 계속하겠다는 의지의 삶을 실천하고 있는 金동문은 論語의 한 구절로 여동생의 평가에 답했다. 「飯疏食飮水 曲肱而枕之 樂亦在其中矣 不義而富且貴 於我如浮雲」

〈元〉

회비납부 솔선하여 참여하는 동문되자

동문여러분께서 내주신 회비는 후배들을 위한 장학사업 및 미술전, 음악회, 회보 발간 등 동창회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쓰여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모교와 동창회에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바랍니다.

〈理事:2월 20일~3월 11일·一般:2월 27일~3월 3일〉

관 악 회

▲이사 金道昶= 30만원

이 사

◇人文大學

▲김석태㉖한불종합금융차장
▲정세혁㉘제일모직정장팀장

◇社會科學大學

▲김호섭㉘중앙대 교수
▲박찬욱㉖서울대 교수

◇家政大學

▲박금옥㉒신구전문대 교수
▲신화용㉕덕성여대 교수
▲윤석임㊵꽃나래 대표이사
▲이기영㉚서울대 교수
▲정하신㊶건국대 교수
▲조 영㉕방송통신대 교수
▲조순옥㊷서울교대 교수

◇看護大學

▲박명자㊻석관중학교장
▲엄미란㉜목포성신간호專大
▲이은옥㊸서울대 교수

◇經營大學

▲박정래㉖금성의료기 이사
▲유관희㉖한양대 교수
▲이상천㉗선경유통 이사

◇工科大學

▲강석규㊿천안호서대 총장
▲강홍섭㊸태광중앙硏 상무
▲강훈식㊾발레오테크 대표
▲경세호㊼(주)가희 대표이사
▲고영주㉑대검 공안기획관
▲고원호㊽(주)대한양행 회장
▲공대식㊵임창산업(주)
▲공병채㉚(주)윤영 대표이사
▲구민회㊶성안합섬 대표이사
▲권순영㊻前울산종합가스
▲권형석㊻두산제관 대표이사
▲김 철㉑(주)대농 전무이사
▲김광옥㊶케미에이스 대표
▲김기정㊽前방림방직 이사
▲김덕재㊽중앙대 교수
▲김도훈㊻연세대 교수
▲김명년㊼벽산ENG고문
▲김봉빈㊶엘칸토 고문
▲김봉완㊾B.W무역 사장
▲김상연㊶유피테크 대표이사
▲김석주㊹前건우통상 사장
▲김석중㊾한빛화학 부사장
▲김성중㊻디케이테크 대표
▲김영기㊶정우석탄화학전무
▲김영치㊹남성해운 대표
▲김용재㊶현대알미늄 사장
▲김윤규㊾현대건설 부사장
▲김일중㉚건설교통부 과장
▲김재선㊻
▲김정중㊷포스코개발 고문
▲김종욱㊺동양섬유대표이사
▲김주호㊽前한국전력공사
▲김준호㊹범아건축대표이사
▲김진만㊽우정주재상사사장
▲김철기㊶(주)삼주건영이사
▲김충세㊽대우정보통신사업
▲김항근㊻유니웰상사 대표
▲김형전㊻남흥건설 대표
▲김형진㊺창덕금속 대표
▲김회재㊿태일송풍기 대표
▲나종택㊼(주)삼광스틸 대표
▲남정현㊶대우ENG 대표
▲노병우㊽우림종합건축소장
▲노준철㊼LG화학 부사장
▲명계복㊿동일기술公부사장
▲문정규㊻남흥건설 회장
▲박금철㊵한양대 명예교수
▲박순자㊹서울대 교수
▲박승빈㊾현대석유상무이사
▲박용규㊷극동건설 부사장
▲박용철㊶장원주유소 회장
▲박조웅㊾삼광건설 사장
▲박주천㊺국회의원
▲박효봉㊹백광산업대표이사
▲배종호㊾대한기공ENG
▲백종기㊽태광특수기계대표
▲백형배㊸前다우케미칼사장
▲복거성㉒메탈게젤샤프트
▲서립규㊶우림콘크리트대표
▲성영환㊹코오롱건설 고문
▲성한표㊻한겨레 논설주간
▲손태염㊼대한ENG 대표
▲손해동㊽대림금속공업회장
▲송억영㊿도화기술公부회장
▲송재준㉚한모기술 사장
▲송흥빈㊽前금성정밀실장
▲신동수㊻동명기술공단회장
▲신봉현㊶부리전기 대표
▲신현국㊽석탄公장성광업소
▲심이택㊸대한항공 부사장
▲양재균㊽쌍용양회공업전무
▲양홍준㊾LG화학 이사
▲엄채영㊿건설ENG 회장
▲염흥주㊼오주산업대표이사
▲오창석㊿대한전기協위원장
▲우남용㊸가나건축대표이사
▲원정수㊼인하대 교수
▲원호녕㊸원기술 대표이사
▲유병철㊼고려대 명예교수
▲유성삼㊺LG멀티미디어硏
▲유승근㊼한국종합건축소장
▲유웅현㊻대우통신 전무
▲유인영㊻前대한전선 대표
▲윤병화㊷우방무역 대표
▲윤팔문㊼동흥공업 사장
▲이교일㊻서울대 교수
▲이규석㊶기립건축 대표
▲이대락㊻세미크론 대표
▲이동춘㊼대명산업 사장
▲이면우㊽서울대 교수
▲이부섭㊿동진화성 대표
▲이상렬㊾(주)미도파
▲이상순㊻롯데건설 대표
▲이선일㊺동양철관 회장
▲이수일㊼현대車남양기술硏
▲이순종㊽한신전자 대표
▲이승원㊼서울대 명예교수
▲이용경㊹한국통신 본부장
▲이원규㊺동양중앙硏 소장
▲이정률㊽한울방적 대표
▲이종각㊽서울대 명예교수
▲이종훈㊾성하지질 대표
▲이주범㊻쌍용그룹상임고문
▲이준의㊹제일화성 대표
▲이철순㊼백률건축소장
▲이호인㉚서울대 교수
▲이호정㉔텍스라인무역상사
▲이홍순㊻신영기술금융회장
▲이희종㊼LG산전 부회장
▲임 회㊹오창개발 대표
▲임정명㊷부산대 교수
▲임종염㊻前LG통신고문
▲장명수㊻전북대 총장
▲장세창㊾이천전기 회장
▲장진양㉑대림산업 상무
▲장하린㊿금호전력 이사
▲장학순㊿삼양정수 회장
▲전계묵㊶포스에너지 사장
▲전영우㊺(주)대원 대표
▲전영환㊼(주)오주산업고문
▲전춘생㊹인하대 명예교수
▲전효택㉑서울대 교수
▲정일모㊼국제전자 대표
▲조규종㊿인하대 명예교수
▲조양래㊹(주)미광 대표
▲조영곤㉔前중석공영상무
▲조장현㉓유니스탠다드무역
▲조장희㊿前과학기술원교수
▲차경모㊷한국다반 회장
▲천주훈㊽천주상사 대표
▲최 탄㊻쌍용ENG 사장
▲최봉준㊾범진(주) 회장
▲최승주㊿클라리언트코리아
▲최영식㊹부산대 명예교수
▲최정욱㊻오봉인터네셔날
▲최창영㊾고려아연 부회장
▲최태영㊾세인전자 사장
▲하영무㉓동일상사 대표
▲함경호㊿덕천정밀 사장
▲함명호㊷건풍상사 사장
▲허영우㊷한양대 교수
▲현희헌㊾최신물산 회장
▲홍상복㊾포항제철 부사장
▲홍성부㊿(주)신한 회장
▲황상일㊹(주)서광건설감사
▲황희선㊸아남그룹 사장

◇農科大學

▲고흥철㊶대한생명 전무
▲곽영구㊺제일화재보험전무
▲김동구㊽前서산시 부시장
▲김영준㊽가락중앙종친회장
▲김영진㊼한국유가공협회장
▲김유인㉚前한정화학 전무
▲김일봉㉒한금관매(주)대표
▲유학선㊷성보화학(주)전무
▲이남호㉓안성산업대학교수
▲이수오㉔창원대학 총장
▲이치섭㊷ROSI MEX
▲이현수㊹삼양제넥스 부사장
▲장규섭㊺충남대 교수
▲정하원㊸마데코인터내셔날
▲함종한㉚국회의원
▲허신행㊻소비자보호원장

◇文理科大學

▲강만식㊺서울대 교수
▲강정문㉑대홍기획 전무
▲고봉진㊹한국일보 이사
▲곽화영㊼에너지관리공단
▲길현익㊺前서강대 교수
▲김 구㊸극동상공 대표
▲김교은㊹농협전문대 학장
▲김근수㉒국민은행서초지점
▲김기주㊽한서대 총장
▲김덕룡㊶국회의원
▲김문진㊺서울신문 전무
▲김병익㊶문학과지성사대표
▲김상응㊹(주)삼양사 회장
▲김성열㊽前동아일보 고문
▲김성집㊽남성산업 대표
▲김영구㊷한영주유소 사장
▲김영민㉚대성탄좌 부사장
▲김인규㉓KBS 취재주간
▲김인호㊽한솔제지 상담역
▲김정태㊾상공회의소부회장
▲김주필㊼동국대 교수
▲김형효㊷정신문화硏교수
▲남시욱㊽문화일보 사장
▲남중구㊹동아일보논설실장
▲노규래㊺충남공영개발사업
▲박광춘㊷KBS 국제방송국
▲박부서㉑경기은행문산지점
▲박상대㊿서울대 교수
▲박운서㊸한국중공업 사장
▲박의송㊹우풍상호신용금고
▲박종오㊿우양교역 사장
▲박찬범㊻택시조합전남지부
▲박태동㉕수출입銀전략팀장
▲방원혁㊹KBS 연구원장
▲서명원㊻前경원대 총장
▲신동호㊼스포츠조선 사장
▲안교덕㊾前대통령비서관
▲어복선㊽(주)서진상임고문
▲오병남㊸서울대 교수
▲오세한㉚농협중앙회 부장
▲오완영㊺오승개발 대표
▲오효원㊼효성원넘버 대표
▲유지웅㊻前특허協사무국장
▲유현준㊿육상연맹 부회장
▲윤영탁㊿
▲윤종혁㊼前홍익대 교수
▲이강준㊹고려종합상가사장
▲이경식㊾前공보처 차관
▲이광희㊸前관광공사본부장
▲이규증㊾국민은행장
▲이근무㊿한국사회학회장
▲이두호㊹한림과학원 교수
▲이병재㊹대동브레이크대표
▲이병학㊽삼주전기 전무
▲이부영㊾국회의원
▲이상렬㉕목포 KBS위원
▲이승윤㊶금호그룹 고문
▲이어령㊻이화여대석학교수
▲이원홍㊷간행물윤리委원장
▲이정윤㊽前동아일보 국장
▲이주홍㊻대우건설 이사
▲이준희㊺세기문화사 국장
▲이창복㊸탑 외국어학원장
▲이한성㊾E.M.C 회장
▲이헌조㊼LG인화원회장
▲임석진㊻명지대 교대원장
▲임의신㊻희성엥겔하드대표
▲임희섭㊾고려대 대학원장
▲장정환㊸前동화은행 감사
▲전상호㊻농심데이타시스템
▲전용성㊿변호사
▲정병순㊷신세계종합금융
▲정서구㊾KBS 진주방송국
▲정연춘㊹아주대 교대원장
▲정연하㊺하일물산 대표
▲정용두㊼바울학회 회장
▲정준호㊷국방대학원 교수
▲정중환㊷강남건영 부사장
▲조성옥㊻인하대 총장
▲천양철㊾연합통신사회부장
▲최 환㊺대검 총무부장
▲최경락㉕외환銀문래동지점
▲최규봉㊼변호사
▲최병민㉕대한펄프대표이사
▲최병억㊸대한생명 부회장
▲표순승㊽건국대경영대학장

◇美術大學

▲김 태㊵前서울대 교수
▲민철홍㊽서울대 교수
▲손희옥㉒단국대 강사

▲윤형규㊸고려서적 부사장
▲이열모㊶성균관대 교수
▲이종복㊻포름디자인 사장

◇法科大學

▲강만수㊾통산부 차관
▲강병섭㉒서울고법부장판사
▲강용현㊽수원지법부장판사
▲강재섭㉔국회의원
▲강현중㊻변호사
▲강홍주㊷세방종합법무법인
▲경익현㊶한일개발 대표
▲고왕석㊶변호사
▲구용완㊾변호사
▲구자춘㊽세웅산업 회장
▲권동렬㊸(주)퍼시스 대표
▲권순복㊻지방행정硏이사장
▲김경수㊵대우시멘트 대표
▲김광희㊽동아증권 회장
▲김기돈㊼(주)범한 대표
▲김길중㊺민사지법부장판사
▲김나복㊾변호사
▲김남수㊽한국국토개발전무
▲김두표㉓동서증권 이사
▲김두희㊷변호사
▲김문희㊾헌법재판소재판관
▲김병룡㊹한국지역난방공사
▲김병주㊸KIMA상사대표
▲김봉환㊺변호사
▲김상구㊾前학술진흥재단
▲김상희㉓대검 수사기획관
▲김석기㊽한호흥업 대표
▲김석영㊺태양종합상사 대표
▲김석우㊼통일원 차관
▲김선중㉔수원지법여주지원
▲김승진㊷변호사
▲김승호㊻변호사
▲김시영㉕변호사
▲김시형㊷한국산업은행총재
▲김신택㊷변호사
▲김양일㊺변호사
▲김영삼㊺변호사
▲김영태㊻담배인삼공사사장
▲김완기㊸변호사
▲김용은㊼변호사
▲김원치㊻서울지검차장검사
▲김윤호㊾전주지검군산지청
▲김응용㊹한전 서광주지점
▲김익하㊹변호사
▲김인중㊵변호사
▲김인호㊻대통령 경제수석
▲김재천㊿국회의원
▲김재철㊶변호사
▲김정국㊺현대중공업 대표
▲김종국㊾진안통상 대표
▲김진만㊹한미은행 전무
▲김진우㊼변호사
▲김진호㊶한전 남인천지점
▲김찬진㊸동서법무법인대표
▲김창근㊺은평구청 감사
▲김창준㊽외국어대 교수
▲김창홍㊵대구지검경주지청
▲김태정㊹법무부 차관
▲김태조㊽변호사
▲김택정㊽변호사
▲김학용㊵경남기업 대표
▲김헌무㊸변호사
▲김현순㊽민주평통자문회의
▲김형선㊷대법원 대법관
▲김홍규㊼연세대 교수
▲김홍헌㉑변호사
▲김황식㉑대법원재판연구관
▲나석호㊼변호사
▲나옥균㊺한화그룹 상무
▲노명준㊶외국어대 교수
▲노승현㊹한승건업 대표
▲문익상㊷현대상선 부사장
▲문정두㊹변호사
▲문현대㊷백륜공업 부사장
▲문홍주㊵미국헌법硏이사장
▲민병국㊸변호사
▲민수명㊹변호사
▲민형기㉒서울지법부장판사
▲박경구㊹변호사
▲박길준㊵연세대 교수
▲박두용㊶한화증권 사장
▲박만호㊷대법원 대법관
▲박상기㊶변호사
▲박성근㊸일은투자 부사장
▲박연철㉒변호사
▲박용우㊹한양화학 전무
▲박원진㊺상주제일도정공장
▲박일룡㊸안기부 1차장
▲박재경㊶한일은행 상무
▲박재철㊺수출입銀금융부장
▲박종렬㊻광주지검목포지청
▲박종록㉑대구지검형사부장
▲박태종㊾서울고검 검사
▲박홍식㊷변호사
▲박희태㊶신한국당원내총무
▲반헌수㊹변호사
▲방 현㊻변호사
▲배용범㊼변호사
▲서규택㊺동성제약 부회장
▲서원태㉒태성 대표이사
▲서정신㊷변호사
▲성기문㊽사법연수원 판사
▲성주형㊸숭의여전 교수
▲손계정㊷제일은행대구본부
▲손기식㉒부산고법부장판사
▲손선규㊹한국감정원장
▲송광수㉑서울지검차장검사
▲송영욱㊶변호사
▲신명균㊻서울고법부장판사
▲신원구㉓구정통상 대표
▲신원식㊶태양연마 대표
▲신재송㊺변호사
▲신정철㊻변호사
▲신홍범㊽제일증권상임고문
▲심훈종㊵변호사
▲안강민㊹서울지검장
▲안동일㊸변호사
▲안번일㊺감사원 감사위원
▲안병수㊽변호사
▲안응호㊻변호사
▲양동관㉑대구고법부장판사
▲양태식㊹금강여객버스조합
▲양회영㊻세양운수 대표
▲오영수㊺대한제강 사장
▲우영제㊵변호사
▲우정권㊻변호사
▲유근완㊷변호사
▲유순석㊼변호사
▲유시권㊸조세硏 연구위원
▲유재웅㊸일은증권 상무
▲유홍수㊺국회의원
▲유희열㊸ASA 대표이사
▲윤규신㊵제일은행 전무
▲윤덕순㊸한국銀인력개발실
▲윤일영㊻변호사
▲윤태남㊽한양공영 이사
▲이강환㊽생명보험협회장
▲이관표㊾변호사
▲이광택㉕국민대 교수
▲이규장㉔비지니스서비스
▲이규효㊼변호사
▲이동희㊶관광硏 연구위원
▲이만호㊾대구노동청장
▲이명희㊼변호사
▲이문재㊺변호사
▲이병기㊷前남해화학사장
▲이상하㊸광주무등일보회장
▲이선우㊺대아·진안여객
▲이세복㊺나드리화장품
▲이세작㊼변호사
▲이수성㊶신한국당상임고문
▲이승우㊾내무부지방공무원
▲이영준㊶변호사
▲이우철㉑총리실 부이사관
▲이원철㊽변호사
▲이인제㉒경기도지사
▲이인표㊽한국이동통신감사
▲이재화㊽헌법재판소재판관
▲이재후㊷변호사
▲이종기㉔변호사
▲이주영㉔변호사
▲이지수㊺한국상업은행이사
▲이창희㉒한국은행수원지점
▲이태희㊹변호사
▲이택기㊵대명PARK대표
▲이한경㊻국민은행저축부장
▲이회창㊼신한국당 대표
▲임광수㊻문체부 저작권과
▲임규오㊾변호사
▲임규운㊼변호사
▲임상현㊸변호사
▲임인상㊵대한상사 대표
▲임종선㊶변호사
▲임채홍㊻변호사
▲임태유㊹변호사
▲임홍빈㊻문학사상사회장
▲장병규㊼두원공전 학장
▲장석주㊶前상업은행검사역
▲전선기㊹기아특수강 전무
▲전용학㊼SBS 정치부기자
▲전윤철㊺해운산업자문위원
▲정구영㊷변호사
▲정극수㊾변호사
▲정동욱㉑서울지검동부지청
▲정배근㊵삼강전기 대표
▲정세용㊽변호사
▲정시영㊹변호사
▲정재일㊻한국산업리스회장
▲정희준㊶송호장학회장
▲제차룡㊹변호사
▲조경근㉒변호사
▲조대현㉓서울지법부장판사
▲조동원㊽한국서비스센타
▲조미경㊶아주대 교수
▲조병길㊼변호사
▲조상흠㉑변호사
▲조성윤㊹외환할부금융사장
▲조용국㊽서울고검 검사
▲조택근㊽前아주생명전무
▲최병태㊹상업銀남대문지점
▲최연희㊽국회의원
▲최원현㊽변호사
▲최중철㉔보흥정미공장대표
▲표민웅㊻부원화성 대표
▲한경국㊶변호사
▲한광세㊹변호사
▲한영석㊶변호사
▲한용구㉑법무사
▲한유동㊶고요한소리사무국
▲함영업㊻변호사
▲함정호㊼대한변호사협회장
▲허홍구㊾경향운수 대표
▲현경대㊹국회의원
▲현휘남㊸동아생명 전무
▲홍경식㉔법무부법무심의관
▲홍석조㉕법무부 검찰과장
▲홍이석㉕변호사
▲홍종현㊽한매보험판매대표
▲황규언㊺동화약품 사장
▲황활웅㉒부산경찰청장

◇師範大學

▲박화서㊹前성서초등학교
▲고준식㊺前당곡중교장
▲공구영㊽청량고 교장
▲길우석㊶삼지화성 부사장
▲김남득㊵관동대 교수
▲김남조㊵숙명여대명예교수
▲김대식㊶충북대 교수
▲김병준㉒성도교회 목사
▲김상준㊷국정교과서 이사장
▲김영곤㊸애경화학 대표
▲김영의㊸前무학여고교장
▲김용일㊾숙명여대 교수
▲김윤태㊵서강대교수
▲김재은㊹前이화여대교수
▲김진규㊷양서중 교장
▲김현곤㊸현대학원 이사장
▲문상호㊺정남산업 회장
▲박송자㊼KIST책임연구원
▲박영석㊹조선기기 사장
▲박영자㊿前문현중 교장
▲박종국㉑경희대 교수
▲박찬도㊷국립교육평가원
▲박창수㊺세무사
▲신동일㊽경인유조 회장
▲신상철㉓도서출판한샘사장
▲양금석㊽한국교회 목사
▲이봉현㊵관악고 교장
▲이용주㊹前서울대명예교수
▲이원순㊾국사편찬委위원장
▲이익환㊽연세대 교무차장
▲임향순㊹경인지방국세청
▲장성원㊶국회의원
▲주일영㊾중앙대 명예교수
▲최영진㉓국제약품 상무
▲최용준㊺천재교육 대표
▲최진오㊻담담실업 대표
▲최창섭㊺정진종합물산사장
▲최태상㊼경복고 교장
▲한진희㊸제일건설 사장
▲홍성한㊻서인천고 교장
▲홍승직㊾아세아사회과학硏

◇商科大學

▲강시봉㊽우성제지 대표
▲강용수㉕(주)유공 부사장
▲고광범㊸(주)아상 대표
▲고병우㊻동계유니버시아드
▲곽건영㊼회계사
▲구정회㊶대일기계 사장
▲권오균㊸前국민대 교수
▲권혁태㊼서울가든 사장
▲김광연㊷영동석유 사장
▲김규석㊾前신탁은행상무
▲김남현㊼前대창흥업상무
▲김도연㊽한솔제지 부사장
▲김동철㊾제일시티리스사장
▲김만경㊼한전석유 대표
▲김명준㊾
▲김상균㊺한국감정원 상무
▲김선중㊵진로그룹 부회장
▲김선태㊻국민은행 이사
▲김영석㊻아시아자동차대표
▲김영일㊺신봉기업 대표
▲김일영㊼前조흥은행연수원
▲김종욱㊷전방(주)부회장
▲김진범㊹한외종합금융사장
▲김천식㊹서울문고 사장
▲김천욱㊷국제이화공업대표
▲김철홍㊻대우정밀 부사장
▲김태범㊺회계사
▲김현곤㊼삼성증권 부사장
▲김현식㊻동아출판 부회장
▲문승영㊶前두산개발대표
▲문언석㊽(주)신양 회장
▲문철한㊵강원대 교수
▲민경재㊾前광은리스회장
▲민창기㊹장은투자자문사장
▲박 간㊻한국銀 부산지점
▲박경휘㊼동화리스금융대표
▲박근식㊹한일은행 상무
▲박대평㊾뉴코아 파이낸스
▲박명규㊻前한일증권고문
▲박영배㉕노드슨상사
▲박영일㊸전파방송관리국장
▲박영조㊺HOYA LENS
▲박욱근㉔삼환기업개발이사
▲박청흠㊹성우통상 대표
▲박헌두㊹대동기어 고문
▲백 철㊶부원상사 대표
▲백승조㊼조흥증권 대표
▲백영탁㊵서광기획광고대표
▲변창기㊽동방산업사 사장
▲서승원㊼공인회계사
▲서승원㊿코오롱그룹 고문
▲서주성㊼연제장학회 이사장
▲서청원㊽삼일회계법인상무
▲석학진㊹코오롱그룹 부회장
▲손기혁㊹동우섬유 대표
▲손길승㊸선경경영기획실장
▲송달호㊵국민은행 부행장
▲송용상㊵한국기술금융사장
▲송인상㉟동양나이론 회장
▲송재복㊼한화기계 사장
▲신동현㊵농협중앙연구위원
▲신명호㊿아세아 세라텍
▲신선기㊽현대정유 부장
▲신유근㊹서울대 교수
▲신현석㊶신한증권 부회장
▲신희철㊸금화기획 대표
▲심근섭㊹대우경제硏전무
▲심상국㊸남경개발 회장
▲심형섭㊸대한보증보험사장
▲안재천㊶남아기업공사사장
▲양성진㊼동국무역 부사장
▲여현동㊷前신탁은행상무
▲우본형㊺가호상사 사장
▲원용훈㊼대림통상 대표
▲위성복㊹조흥은행 상무
▲유명집㊾유신교역 회장
▲윤승두㊸前증권거래소
▲이계문㊼일신산업 상무
▲이계욱㊼LG CALTEX
▲이광수㊹거평금융 회장
▲이구수㊸롯데알미늄 이사
▲이규성㊸건양대 교수
▲이근희㊻한양대 교수
▲이길우㊸대한화재보험고문
▲이동대㊶前서울신탁銀감사
▲이동원㊺이화요업 대표
▲이명기㊸(주)모라도 전무
▲이병식㊶공인회계사
▲이상선㊸(주)경방 상임감사
▲이상학㊸전방텍스타일대표

▲이석채㊽대통령 경제수석
▲이수익㊺동진개발 사장
▲이용우㊺서울증권 상무
▲이용호㊼협진양행 회장
▲이은방㊶(주)CTI 대표
▲이재진㊼동화은행장
▲이종각㊷산업은행부총재보
▲이종기㊶삼성화재보험대표
▲이종연㊻조흥증권 회장
▲이준용㊿동아제분 회장
▲이태환㊷내외반도체부사장
▲이희순㊶세무사
▲이재수㊺한신경제硏소장
▲장기팔㊷한일증권 사장
▲장덕신㊼대우전자부품부장
▲장만화㊶서울은행장
▲장무웅㊻(주)미화당 부회장
▲장종의㊹대구리스금융
▲전영완㊻이정INT 회장
▲전용수㊻인하대 부총장
▲전종혁㊶동아임산 부회장
▲전창수㊶한진종합건설대표
▲정두채㊷광주 남구청장
▲정산진㊼현양상사 회장
▲정성훈㊻메디텍 대표이사
▲정소영㊵고려종합경제硏
▲정진우㊺삼양정수공업전무
▲정희영㊺선진종합 대표
▲조경수㊹한국슈미트 대표
▲조동일㊺한국은행검사국장
▲조원기㊵공인회계사
▲조항원㊻교보생명 이사
▲최광현㊼광성산업 사장
▲최남해㊻前중앙관광개발
▲최동건㊼동양나일론 상무
▲최명재㊽파스퇴르유업회장
▲최선욱㊼외환銀정보시스템
▲최운렬㊼서강대 교수
▲최정환㊺우성식품 대표
▲한병무㊺삼화향료 사장
▲한석윤㊽덕신실리콘 회장
▲한일상㊻강남기업 대표
▲한주일㊽초로교역 사장
▲한찬수㊽대림수산 전무
▲한창곤㊼삼성중공업부장
▲홍국태㊾한국문학 사장
▲홍문신㊺대한재보험 사장
▲홍성인㊿대창홍업 부사장
▲홍순기㊹(주)남양 회장
▲황창연㊷회계사

◇獸醫科大學

▲김범래㊻(주)동우 회장
▲김오섭㊿아카데미 대표
▲백문영㊽영지문화 사장
▲서정범㊿제일화학 대표
▲장병표㊼삼화동물약품대표
▲조사선㊼서울대 교수

◇藥學大學

▲강해석㊽함춘약국
▲공남식㊿신당약국
▲공영석㊼영신약국
▲권오탁㊹천지당약국
▲김명수㊼KIST책임연구원
▲김선중㊺롱프랑로라제약
▲김원보㊼평안약국
▲김윤종㊶마성상사 대표
▲김진훈㊾제일제당생산부장
▲김충섭㊺KIST책임연구원
▲김태욱㊸호남약국
▲문경운㊾경일약국
▲박정규㊹신라약국
▲배영환㊼보영약국
▲서석수㊸前부산대대학원장
▲송상섭㊼일성신약 상무
▲우중균㊺동양화학 대표
▲이강추㊽신약개발연구조합
▲이계준㊽서울대 교수
▲이동원㊶(주)새한제약 회장
▲이창기㊾대륙ENG 회장
▲조남춘㊷서울대병원 부장
▲조내규㊷제중당약국 대표
▲지현석㊿대우약품 대표
▲황준수㊿서울제약 대표

◇音樂大學

▲이명학㊾前서울대 교수
▲이재숙㊸서울대 교수
▲장혜경㊻건국대 교수

◇醫科大學

▲강조웅㊽서울정형외과원장
▲강형운㊾동산재활의원장
▲고영우㊹산부인과의원장
▲김광수㊿광생의원장
▲김귀윤㊽김귀윤의원장
▲김기선㊶광주피부과의원장
▲김기영㊾제일병원장
▲김기용㊿울산대 의대학장
▲김병찬㊿한라병원장
▲김병천㊶김병천내과의원장
▲김성연㊷서울대 교수
▲김수명㊼前춘천보건전문대
▲김연기㊹소아과의원장
▲김영균㊾동아제약상임고문
▲김영덕㊿서울산부인과의원
▲김영룡㊺백병원크리닉부장
▲김용진㊸
▲김우곤㊶안과의원장
▲김인원㊽서울대 교수
▲김종선㊻서울대 교수
▲김주일㊽금촌의원장
▲김주현㊶서울대 교수
▲김홍규㊶일신산부인과의원
▲노재규㊷서울대 교수
▲노준량㊻서울대 교수
▲도광찬㊶소아과의원장
▲문국진㊺고려대 명예교수
▲문효중㊷피부비뇨기과의원
▲박광수㊶산부인과의원장
▲박남진㊾前안세병원 과장
▲박동건㊼신경정신과의원장
▲박문갑㊸박애의원장
▲박용재㊶내과의원장
▲박찬웅㊿서울대 교수
▲박효일㊹인제대 교수
▲배대경㊿경희대 교수
▲백상호㊾서울대 교수
▲변종훈㊼한국보훈병원부장
▲서병준㊹산부인과의원장
▲선덕영㊾이비인후과의원장
▲선우대활㊼이비인후과의원장
▲성상철㊸서울대 교수
▲손광현㊽서울중앙병원
▲손기섭㊼대전중앙병원장
▲송영철㊾소아과의원장
▲신 건㊾내과의원장
▲신명희㊷성요셉병원 과장
▲신순철㊽진주 제일병원장
▲신영배㊸명천의원장
▲신현정㊾내과의원장
▲심달섭㊵前대한임상의학硏
▲심영보㊶의료법인 길병원
▲심재식㊸한국보훈병원과장
▲양재건㊵양외과의원장
▲오경균㊸원자력병원과장
▲오도웅㊷서울의원장
▲오준식㊽이비인후과의원장
▲유명식㊼서부병원마취과장
▲유명철㊼경희의료원 과장
▲유영철㊻남산의원장
▲윤세희㊻인덕의원장
▲윤수중㊾신경정신과의원장
▲윤택구㊼원자력병원병리학
▲이건욱㊿서울대 교수
▲이기상㊾새서울내과의원장
▲이병두㊹한일병원병리과장
▲이영근㊽前대전을지병원
▲이용국㊺내과의원장
▲이정균㊷한양대병원장
▲이정상㊻서울대 교수
▲이종구㊼중앙병원심장센터
▲이종원㊶외과의원장
▲이진용㊸서울대 교수
▲이학중㊽단국대 교수
▲장선택㊷중대필동병원
▲장성근㊼정형외과의원장
▲전동원㊹소아과의원장
▲정세우㊸前광주인하의원장
▲정원석㊽동서울병원 과장
▲정희원㊺서울대 교수
▲조강희㊺인제대 교수
▲조명하㊽외과의원장
▲조보연㊶서울대 교수
▲최 황㊾서울대 교수
▲최관흠㊽대성의원장
▲최세준㊾소아과의원장
▲최진수㊿내과의원장
▲최창욱㊿순천향대 교수
▲최호용㊹산부인과의원장
▲하재동㊼재동의원장
▲한만동㊷외과의원장
▲한원호㊽내과의원장
▲한정철㊷덕산병원장
▲홍영수㊸신경정신과의원장
▲홍영식㊼소아과의원장
▲홍영표㊽결핵협회연구원장
▲황정운㊿내과의원장

◇齒科大學

▲강효식㊶인제대교수
▲구창수㊻구치과의원장
▲김경애㊶김경애치과의원장
▲김두현㊹김두현치과의원장
▲김문형㊻김문형치과의원장
▲김상세㊻김상세치과의원장
▲김석연㊹혜림치과의원장
▲김성래㊼동산치과의원장
▲김영훈㊿김영훈치과의원장
▲김용운㊽김용운치과의원장
▲김인석㊿약수치과의원장
▲김인수㊵동산치과의원장
▲김정균㊺김정균치과의원장
▲김종우㊼예치과의원장
▲김주환㊼중앙병원치과과장
▲김치영㊿김치영치과의원장
▲김현풍㊻김현풍치과의원장
▲김홍석㊶김홍석치과의원장
▲남동석㊺서울대 교수
▲남용욱㊵남용욱치과의원장
▲라윤영㊻라윤영치과의원장
▲문제원㊻문제원치과의원장
▲박인출㊼예치과의원장
▲백동준㊷백동준치과의원장
▲백순지㊾백순지치과의원장
▲백승호㊾백승호치과의원장
▲변석두㊼변치과의원장
▲서정기㊻서정기치과의원장
▲서진관㊼한일치과의원장
▲성백균㊶성백균치과의원장
▲성재현㊷경북대 교수
▲송희춘㊶송치과의원장
▲양영태㊿양영태치과의원장
▲엄태섭㊿엄치과의원장
▲엄필성㊿남북치과의원장
▲염성환㊽지현치과의원장
▲염정배㊹염정배치과의원장
▲오계석㊼오치과의원장
▲유광길㊾유광길치과의원장
▲윤두중㊺윤두중치과의원장
▲윤창혁㊾윤치과의원장
▲이경모㊽이경모치과의원장
▲이상철㊶경희대 교수
▲이영식㊾이영식치과의원장
▲이용오㊿제일치과의원장
▲이한무㊶이한무치과의원장
▲인태운㊼인치과의원장
▲임동욱㊸안암치과의원장
▲임용준㊷임용준치과의원장
▲장문수㊺신애치과의원장
▲장철성㊻장철성치과의원장
▲정건용㊼현대치과의원장
▲정상훈㊼성모치과의원장
▲정현주㊽전남대 교수
▲주관철㊺의당치과의원장
▲지윤택㊷지윤택치과의원장
▲하상완㊿신흥치과의원장
▲한국영㊿한국영치과의원장
▲한성훈㊻한성훈치과의원장
▲한응렬㊺한응렬치과의원장
▲홍예표㊶홍예표치과의원장

◇大學院

▲권성철㊹중앙일보전문위원
▲남덕우㊻산학협동재단회장
▲유석진㊾베드로신경과원장

◇經營大學院

▲백대기㊸충북대 경대원장
▲신길수㊽명지대 교수
▲우덕창㊾쌍용그룹 부회장
▲이상선㊽(주)경방 감사
▲진도진㊷대양제지 부사장
▲최성종㊼화성기업 회장
▲한경호㊼신공덕새마을금고

◇敎育大學院

▲김병두㊺강원도 교육감

◇保健大學院

▲김초강㊷이화여대 교수
▲윤용길㊿삼아상사 대표
▲조경종㊿빅컴(주) 회장
▲조남춘㊾서울대병원 부장

◇司法大學院

▲이우길㊻변호사
▲이원섭㊹변호사

◇新聞大學院

▲곽찬호㊶평통자문광진구協
▲유일상㊹건국대 교수
▲이근수㊾서호레저 사장

◇行政大學院

▲고충삼㊺한진정보통신사장
▲김번웅㊿동국대 교수
▲김성규㊷동계유니버시아드
▲김안제㊺서울대 교수
▲김한곤㊶前충남도지사
▲노석호㊵서울통신기술대표
▲문희갑㊻대구광역시장
▲박범채㊻고려합섬상임감사
▲박영환㊽체우홍업 대표
▲이준웅㊵국제경영硏이사장
▲이훈섭㊹前한국물가협회
▲임경호㊺지방행정연구원장
▲주병덕㊾충북도지사
▲황갑손㊶지역개발학회장

◇環境大學院

▲박춘배㊾주택사업공제조합

◇최고경영자과정

▲김진재㊻국회의원
▲김찬우㊷국회의원
▲임진출㉟국회의원

일 반

◇人文大學

▲김석희㊻ ▲김종하㊾
▲박정우㊺ ▲손철배㊼
▲이동일㊾ ▲최훈근㊸
▲함수경㊼ ▲현무환㊶

◇社會科學大學

▲강지웅㊾ ▲김이환㊻
▲김인수㊽ ▲김주연㊽
▲이재진㊼ ▲이창수㊾

◇自然科學大學

▲김수영㊸ ▲김혁주㊷
▲김홍윤㊾ ▲김후식㊼
▲송대엽㊺ ▲유영만㊽
▲이묘재㊻ ▲임인성㊺
▲임항교㊸ ▲장근일㊾
▲전성호㊼ ▲정언택㉝
▲조동원㊽ ▲하남규㊺

◇家政大學

▲김경애㊿ ▲김선미㊼
▲도영자㊹ ▲이민희㊸
▲임은순㊻ ▲전영숙㊷
▲정진염㊷ ▲조정자㊺

◇看護大學

▲백형자㊷ ▲유명옥㊾
▲이혜자㊷ ▲정숙자㊹
▲조동란㊿

◇經營大學

▲강경우㊹ ▲김광일㊾
▲박현철㊸ ▲오승환㊼
▲이창환㊷ ▲정우용㊾
▲정회돈㊺ ▲최원국㊿

◇工科大學

▲강영택㊺ ▲고광렬㊺
▲곽순태㊿ ▲김강수㊷
▲김경민㊽ ▲김광원㊾
▲김남국㊸ ▲김무조㊸
▲김성기㊹ ▲김수홍㊹
▲김영식㊿ ▲김영식㊾
▲김영준㊺ ▲김종원㊽
▲김진환㊹ ▲김한섭㊷
▲김한준㊹ ▲김효원㊸
▲민현석㊽ ▲박성규㊼
▲박정영㊺ ▲박준호㊹

▲방극렬64 ▲변희협86
▲서영길59 ▲송영주70
▲신경호65 ▲신용석90
▲신현식54 ▲오세용77
▲오준석87 ▲유경화82
▲유교환61 ▲유기봉78
▲유박행67 ▲유호섭89
▲윤남진57 ▲윤상건77
▲윤승하79 ▲윤은기72
▲이경식78 ▲이대형71
▲이상건92 ▲이상헌69
▲이상헌95 ▲이상현67
▲이선우49 ▲이수원61
▲이승준94 ▲이용석55
▲이우진69 ▲이장석93
▲이재원82 ▲이재윤71
▲이종성68 ▲이중원74
▲이지복68 ▲이충형79
▲이희성85 ▲임헌구73
▲장상돈82 ▲장재필78
▲정 발70 ▲정봉철72
▲정준식61 ▲정태영75
▲정형수63 ▲조덕상71
▲조상현87 ▲진영록58
▲차성한72 ▲차정일64
▲채경민82 ▲최규복61
▲최기일86 ▲최동환68
▲최수강77 ▲최주호67
▲최준식75 ▲하준환55
▲한봉희52 ▲한선화84
▲한희서65 ▲허태림69
▲홍순민95 ▲홍충희65
▲황규덕53 ▲황정렬68

◇農科大學

▲강신규75 ▲강영선40
▲고장원59 ▲구능완60
▲김경수55 ▲김낙배81
▲김대우89 ▲김두만56
▲김선호75 ▲김성식88
▲김성한50 ▲김영길57
▲김영숙72 ▲김익래89
▲김재휘88 ▲김정빈65
▲박수복61 ▲박순석55
▲박옥임74 ▲박준규57
▲서정선56 ▲손현수53
▲유문형55 ▲유한상87
▲윤정원89 ▲윤희석70
▲이동창68 ▲이선길79
▲이종태70 ▲이창구70
▲장길평66 ▲정영봉75
▲조현모76 ▲지영숙63
▲한태우49 ▲홍덕표78
▲홍선기88

◇文理科大學

▲강경신72 ▲강석명61
▲고광삼72 ▲김경준62
▲김동억70 ▲김위겸49
▲김일송68 ▲김재완68
▲김종진62 ▲김진원56
▲김태영62 ▲김훈수49
▲남동우72 ▲노영일64
▲문 룡58 ▲박남서72
▲박주기64 ▲서남수75
▲송재평61 ▲신익성52
▲양갑석63 ▲엄규진48
▲유익형50 ▲윤호균64
▲이승환60 ▲이영회59
▲이형준75 ▲장국원61
▲전인영65 ▲전중수56
▲조재신64 ▲최종근54

◇美術大學

▲강영봉61 ▲권복주68
▲권여현85 ▲김 현78
▲김경수63 ▲김동선57
▲김원중63 ▲김호득75
▲노숙자66 ▲박경희62
▲박성완82 ▲박연도60
▲서용선79 ▲원인종82
▲이경자61 ▲이설자65
▲정병구70 ▲현숙자60

◇法科大學

▲강해룡57 ▲고민수89
▲곽윤직51 ▲김기봉56
▲김명수57 ▲김철규62
▲김철자63 ▲문대성89
▲박성원85 ▲박성진89
▲안상돈63 ▲우의형70
▲유영춘52 ▲유철희56
▲이경익86 ▲이경재72
▲이상원84 ▲이석영55
▲이석희70 ▲이승섭81
▲이희철51 ▲천인수63
▲최광수57 ▲최규범65
▲최성주68 ▲최영홍76
▲허택원57 ▲홍순영44

◇師範大學

▲강성철75 ▲곽지훈81
▲구인환54 ▲김남옥60
▲김동찬55 ▲김명곤76
▲김봉규56 ▲김승관55
▲김시형58 ▲김영일77
▲김영찬59 ▲김영헌52
▲김원태32 ▲남기한58
▲박재공69 ▲박종민77
▲박지모77 ▲박태화56
▲소병헌52 ▲신 훈71
▲신금자45 ▲염도균65
▲유기웅72 ▲유영숙42
▲유완수60 ▲유희임68
▲윤명희65 ▲윤의순57
▲이규원47 ▲이무일70
▲이재승71 ▲이훈상65
▲정의포77 ▲정일환50
▲조규홍64 ▲조용란59
▲조원형59 ▲조청자65
▲주영순55 ▲진현선92
▲최상호61 ▲황종근80

◇商科大學

▲강용운65 ▲고병욱58
▲권영식74 ▲김 욱65
▲김석근65 ▲박 승61
▲박광규62 ▲방종석53
▲손성철59 ▲송화섭57
▲신용구57 ▲신위철49
▲안익수57 ▲양재육57
▲엄한섭66 ▲오증근71
▲유노상64 ▲유승준43
▲유창록61 ▲이강호36
▲이인원68 ▲이중희52
▲이해웅59 ▲조관호60
▲주 일57 ▲최병로59
▲허재경61 ▲현호경51
▲홍성표65

◇獸醫科大學

▲강 호68 ▲석세조54
▲윤재득66 ▲이무익83
▲이성엽85 ▲정창국51
▲최광수64

◇藥學大學

▲고광호69 ▲박시우73
▲배윤상58 ▲안병옥76
▲오천권76 ▲이규송57
▲이병규47 ▲이석만62
▲이주완50 ▲이주형71
▲천길순56

◇音樂大學

▲권한준89 ▲박란희88
▲박정애69 ▲성석태75
▲신대철73 ▲윤의중87
▲이서현96 ▲이효순67

◇醫科大學

▲강진구65 ▲강치명49
▲김경일82 ▲김명아85
▲김성용85 ▲민원식82
▲박용수86 ▲백낙형58
▲이갑로71 ▲이원석87
▲임재준56 ▲정광원63
▲정문현83 ▲한종희75
▲허 현67 ▲홍석근87
▲홍승인85

◇齒科大學

▲구본석84 ▲김선용69
▲김연만59 ▲김옥희83
▲김용철70 ▲김태인56
▲김혜현85 ▲노재구73
▲박성득59 ▲박인자69
▲박정덕78 ▲신동인83
▲신언일77 ▲신춘식78
▲유기환70 ▲유현호60
▲임형우61 ▲정치영82
▲조승호73 ▲차혜영67
▲홍성익61

◇大學院

▲송승욱76 ▲신경환71
▲전태윤86 ▲정병희52
▲조수용83 ▲조한옥61
▲최 헌86 ▲황인태86

◇經營大學院

▲신영구68

◇保健大學院

▲서광석81 ▲윤기은72

◇新聞大學院

▲김희옥76

◇環境大學院

▲박 인92

◇최고경영자과정

▲김기용28 ▲김길부38
▲김선홍14 ▲김성민7
▲김성용10 ▲김영일33
▲명남진16 ▲민성기32
▲박수웅39 ▲백정기4
▲백종만39 ▲변정주41
▲사윤진30 ▲신동식26
▲안기옥16 ▲안복현41
▲안인환29 ▲양재균37
▲유상옥39 ▲유철수15
▲유환수32 ▲윤석금27
▲윤우영26 ▲이광재19
▲이규범41 ▲이용배28
▲이원복15 ▲이종호27
▲이희정39 ▲임 언37
▲조대형26 ▲하영수4
▲현경자40 ▲홍영의26

◇최고산업전략과정

▲강인순9 ▲김정웅12
▲김종목6 ▲김태욱7
▲박병수7 ▲박인서12
▲박희수11 ▲안정환11
▲이호웅4 ▲전종윤10
▲차전환8 ▲최동수12
▲황병조11 ▲황영재10

◇국가정책과정

▲김정수30 ▲이문광37
▲이진삼21 ▲황상흠4

◇고급금융과정

▲은장기4 ▲최정도1

지 부

◇태국

▲김석건 ▲구 정

▲김미숙 ▲김상엽
▲김인섭 ▲김종락
▲박동선 ▲박석호
▲서옥식 ▲안경자
▲오정일 ▲유기희
▲윤병호 ▲이명훈
▲이정우 ▲이종선
▲이종순 ▲전성희
▲전인숙 ▲정기평
▲최광연 ▲최규명
▲최병효 ▲최충주
▲한남혁 ▲홍종기

「관악홀 의자 실명제」에 적극 동참을!

본회는 동문 3백명에게서 각 10만원씩을 기증받아 고급 의자를 제작, 의자 뒷부분에 출연자의 성명과 출신대학을 명기하는 「관악홀 의자 실명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서울대동창회관이 서울대인의 진정한 사랑방이 될 수 있도록 동문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96년 12월~97년 3월 출연자 명단

△權永昊(서진빌딩회장) △朴鵬培(前서울교대교수) △朴英子(시인, 前문현중학교장) △朴裕眞(在美) △윤정익(서울대 대학원 재학중) △李東昊(구정고교 교사) △李鍾國(前워싱턴D.C지부동창회장) △鄭宮瑞(치과의원장)

도움주실 동문은 온라인 입금 후, 전화연락 바랍니다. **온라인** : 조흥은행 397-03-002804(김재순) **전화** : (02)702-2233

"지금 동창회 신용카드를 신청하세요"

〈발급기간 : 97년 3월 1일~3월 31일〉

법 인

◇동영알루미늄공업(주)
金鍾仁(64년 行大院卒)=1좌

개 인

◇人文大學

▲김강지92 ▲남혜아97

◇社會科學大學

▲정래철97 ▲정성은97
▲주영민97

◇自然科學大學

▲박성원97 ▲박종희95
▲조성현89

◇看護大學

▲양은숙54

◇經營大學

▲송석진97 ▲이규영94
▲이준구97

◇工科大學

▲가제순94 ▲김문현69
▲문석형54 ▲박은호97
▲박정대67 ▲백승엽97
▲서연진97 ▲석승한97
▲심호섭97 ▲안동만73
▲안병제72 ▲윤기일65
▲이교성81 ▲이수영97
▲이원재78 ▲임홍재79
▲임 회64 ▲정해종70
▲한혜승95

◇農科大學

▲강성우97 ▲권오준69
▲김용태88 ▲신춘식80
▲최세광97

◇文理科大學

▲박용환66 ▲변용찬59
▲오혁주60 ▲원정상72
▲최 홍74

◇美術大學

▲김은선97 ▲최정희63

◇法科大學

▲김기돈67 ▲이진구78
▲임홍빈56

◇師範大學

▲고대웅97 ▲김진성97
▲남선주97 ▲박임숙79
▲이상연54 ▲조영진80

◇獸醫科大學

▲이유원73 ▲허준영90

◇藥學大學

▲양현하70 ▲최승호71

◇音樂大學

▲박란희88

◇醫科大學

▲곽금연97 ▲김석한97
▲남영재94

◇齒科大學

▲김진홍84

◇大學院

▲김동진85

◇保健大學院

▲남철현64 ▲홍숙현75

◇行政大學院

▲윤종화72

◇環境大學院

▲박상섭86

◇최고경영자과정

▲박영근17

◇최고산업전략과정

▲최창식11

◇국가정책과정

▲이희찬30